시진핑의 3연임과 한중관계 소고

안 유 화
AN YU HUA
(安钰华) 博士

yuhuaan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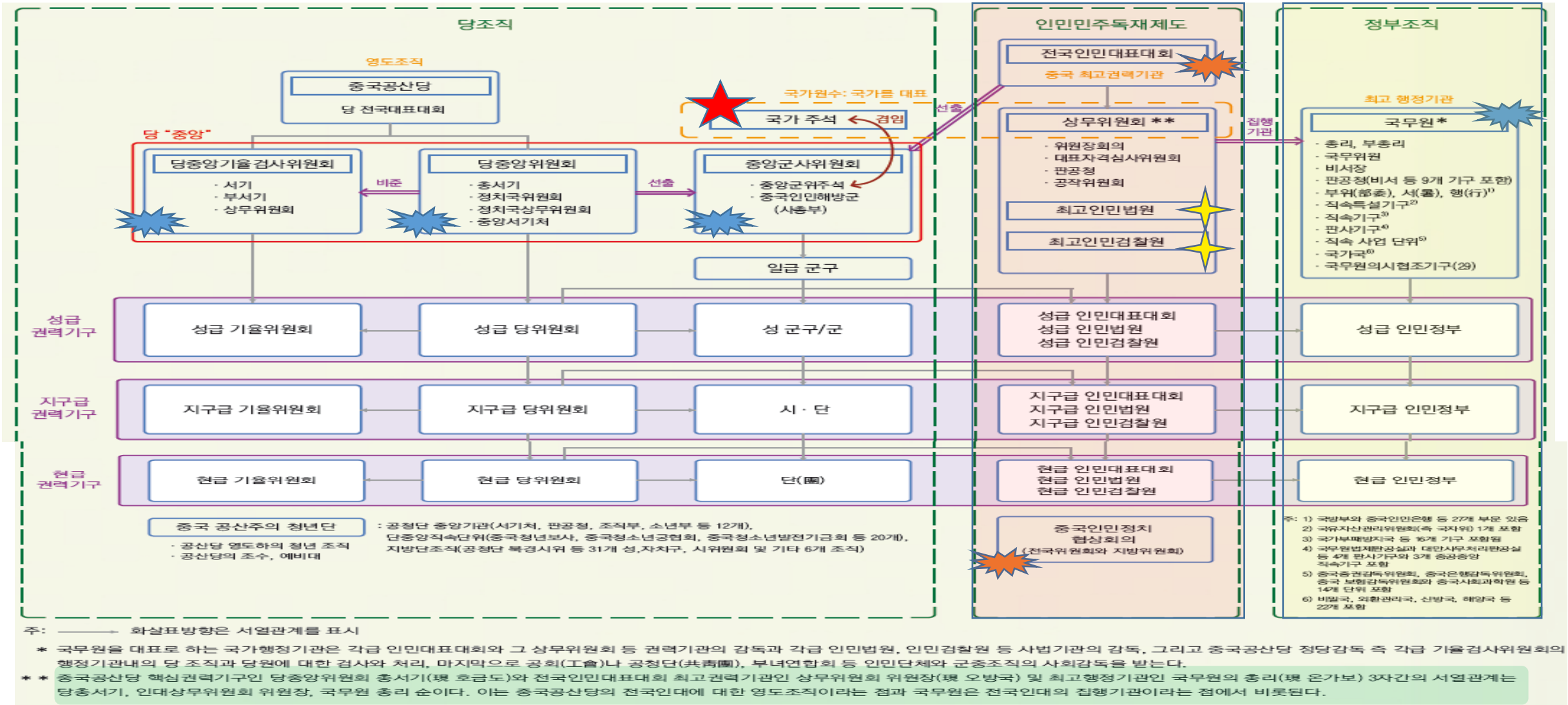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한국 외교부 재외동포분과 자문위원
미국 CO2 Network 주식회사 전략총괄(CSO)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중국 국가권력기구 구성

❖ 정치권력구조는 "6+1+2" 체계
- 1은 국가주석, 2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 6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국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중국 공산당 조직 구성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정부조직



주: ——→ 화살표방향은 서열관계를 표시

* 국무원을 대표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감독과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등 사법기관의 감독, 그리고 중국공산당 정당감독 즉 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행정기관내의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검사와 처리, 마지막으로 공회(工會)나 공청단(共靑團), 부녀연합회 등 인민단체와 군중조직의 사회감독을 받는다.

* * 중국공산당 핵심권력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총서기(現 호금도)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권력기관인 상무위원회 위원장(現 오방국) 및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의 총리(現 온가보) 3자간의 서열관계는 당총서기, 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원 총리 순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전국인대에 대한 영도조직이라는 점과 국무원은 전국인대의 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시진핑의 3연임의 시작 - 20기 정치국위원과 상무위원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정치국 위원 프로필

최초로 여성이 없는 정치국

https://www.zaobao.com/special/cpc-20-national-congress

20기 상무위원 관계 변화

https://www.zaobao.com/special/cpc-20-national-congress

20차 당대회 업무보고 구성과 당장 수정내용

20차 당대회 업무보고의 구성

구분	제목
1장	지난 5년의 업무와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
2장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및 시대화의 새로운 경계 개척
3장	신시대, 신과정 중국공산당의 사명과 임무
4장	신발전 구도의 신속한 구축과 고질량(고품질) 발전의 추진
5장	'과학기술·교육 흥국(科教兴国)' 전략의 추진과 현대화 건설 인재 육성 강화
6장	전 과정의 인민 민주 발전과 인민의 주인 역할 보장
7장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国) 견지와 법치 중국 건설의 추진
8장	문화 자신·자강(自信自强)의 추진과 빛나는 사회주의 문화 조성
9장	민생 복지의 증진과 인민생활의 질 제고
10장	녹색발전 추진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공생 촉진
11장	국가안전(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추진 및 국가안전(안보)과 사회 안정의 수호
12장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 실현 및 국방·군대 현대화의 새국면 개척
13장	일국양제의 견지·완비 및 조국통일 추진
14장	세계 평화와 발전 촉진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동
15장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 견지 및 신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노정을 심화 추진

자료: 당대회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KIEP, 2022년 10월 27일 Vol. 22 No.15

중국 20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https://www.kiep.go.kr › galleryDownload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21023-1325511

중국은 소조정치: 경제,군대,인터넷,개혁

◆ 영도소조(领导小组, leading small group)' :"小组治大国，大事建小组"

1 중앙전면심화개혁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小组) 소장 : 习近平（1953） 부소장 : 李克强（1955）刘云山（1947）张高丽（1946）

2 중앙네트웍안전과정보화영도소조(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 소장 : 习近平（1953） 부소장 : 李克强（1955）刘云山（1947）

3 중앙군사위원회심화국방과군대개혁영도소조(中央军委深化国防和军队改革领导小组) 소장 : 习近平（1953）

부소장 : 范长龙（1947）许其亮（1950）

4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财经领导小组) 소장 : 习近平（1953） 부소장 : 李克强（1955）张高丽（1946） 재경영도소조

5 중아외사공작/중앙국가안전영도소조(中央外事工作/中央国家安全领导小组) 소장 : 习近平（1953） 부소장 : 李源潮（1950）

6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中央对台工作领导小组) 소장 : 习近平（1953） 부소장 : 俞正声（1945）

7 중앙당의건설공장영도소조(中央党的建设工作领导小组) 소장 : 刘云山（1947） 부소장 : 王岐山（1948）赵乐际（1957）

8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中央宣传思想工作领导小组) 소장 : 刘云山（1947） 부소장: 刘奇葆（1953）刘延东（1945）王伟光（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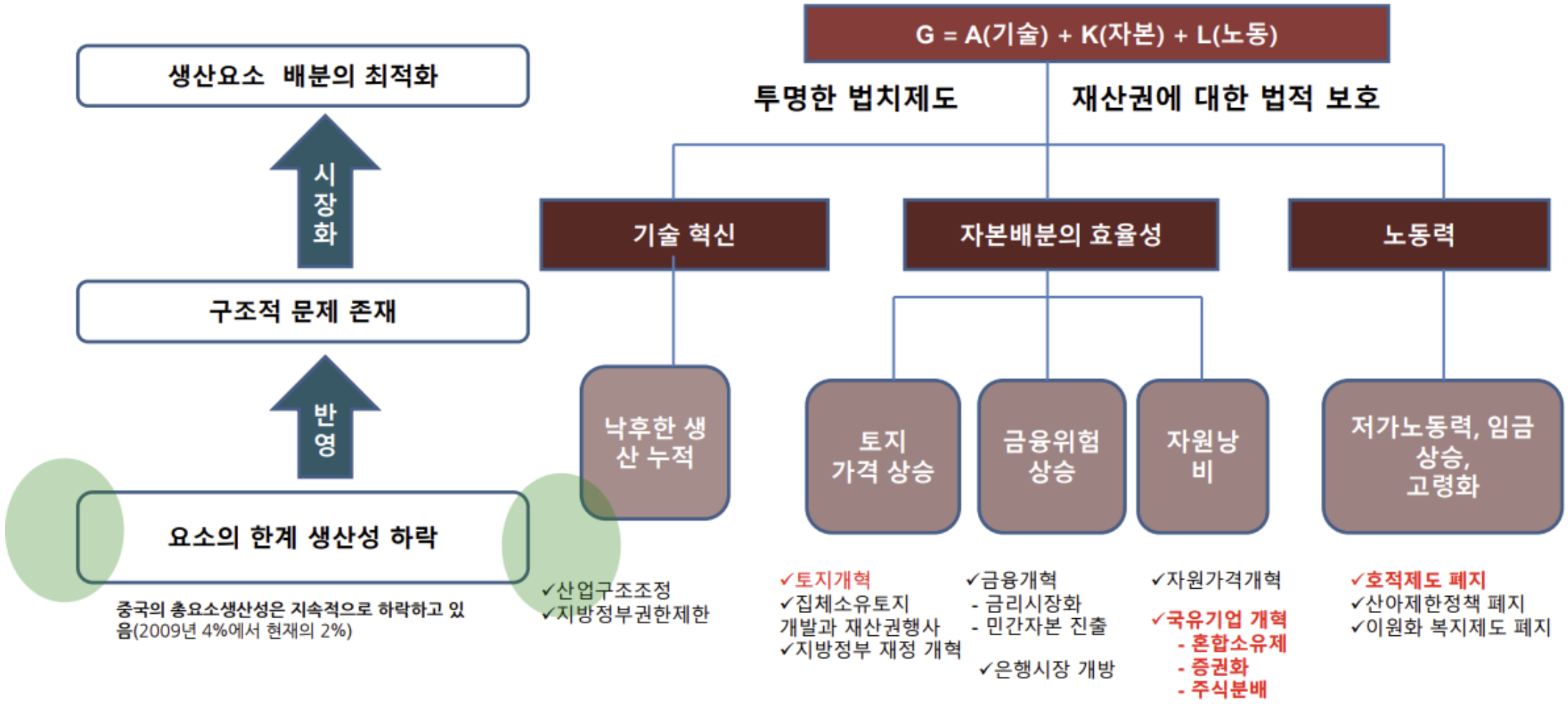
9 중앙당의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영도소조(中央党的群众路线教育实践活动领导小组) 소장 : 刘云山（1947） 부소장 : 赵乐际（1957）赵洪祝（1947）

10 중앙순시공작영도소조(中央巡视工作领导小组) 소장 : 王岐山（1948） 부소장 : 赵乐际（1957）赵洪祝（1947）

0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 주석 : 习近平（1953） 부주석 : 李克强（1955）张德江（1946）

중국경제 성장의 질: 제도적 문제 극복여부가 중요

중국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이 KEY - 공급측 개혁 필요성



등소평의 중국개혁논리

등소평의 중국개혁의 포인트

A. 적시적인 가격개혁(시장개혁)

B. 평가

- 이 개혁과정은 사회의 큰 충격 혹은 쇼크가 없이 진행되었고 경제활동과 생산의 연속성을 보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높은 성장율을 기록
- 중국은 바로 개혁개방을 통하여 지구상에서 영향력이 큰 발전중국가로 되었음

남겨진 개혁과제

➢ 정치체제개혁의 필연성.

A. 코스가 우리한테 알려준 진리

효율적인 현실체제의 길은 오직 이 두 극단의 중간에 있다는 것.

초대형국가회사나 완전한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것.- 중국경제체제개혁의 실천이 증명함

전제조건: 권리의 명확한 확정

B. 정치체제개혁의 필연성 – 국가행정권력의 확정은 어디까지?

- **개혁의 최종 난점:** 권리의 확정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에서 유일하게 아직 해결이 안된 권리범주는 국가행정권력의 확정임.
- **정기합일, 정경합일, 하방된 권력은 무엇으로 제약을 주어야 하냐?** 효율적인 제약이 없으면 행정권력이 시장에 간섭하게 되고 부패가 어느 한 관료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임. 행정권력이 시장거래를 교란하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 **등소평의 탐색:** 1980년대 당과 국가체제의 개혁, 1986년에 아주 명확하게 만약 정치체제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체제개혁의 성과는 지켜낼 수도, 계속 진행해 갈수 없다고도 하였음. 즉 경제개혁과 정치체제개혁은 동시에 진행해야 개혁의 성공 가능하다는 것
- **개혁의 요점:** 바로 초대형급국가회사의 일부분 행정권력을 단속하는 것

1987년 중공13대에서는 정치개혁의 개혁강령을 통과시켰지만 1988년의 가격개혁이 실패하여 북경 6.4사건이 터져 정치개혁을 실시할 기회를 얻지 못함. 1992년 등소평의 남방강화에서도 주요하게 경제개혁,시장화와 발전가속화에 대해서만 언급함. 때문에 정치체제개혁은 등소평의 이룰 수 없는 소원으로 됨.

남겨진 개혁과제

➢ 권력의 방치: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A. '권력'의 함의는 합법적인 강제력이다.

- 초대형급국가회사는 하나의 완전한 기업이 아니라 행정권력(power)시스템이기도 하다.

'권력'의 함의는 합법적인 강제력이고 이는 **경쟁하는 시장계약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재산권propertright'관계정의보다 어렵다.**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는 회사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권력 요소, 합법적인 강제력 요소가 들어있음

B. 끝나지 않은 개혁

- **중국개혁의 거대한 성과:** 하나의 초대형국가회사라는 극단적인 조직에서 농촌도급제, 민영기업,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하여 가격메카니즘으로 자원배분을 하는 시장경제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생산력을 크게 해방시켰음

- **개혁이 아주 끝나지 않았음:** **가장 큰 도전은 정기합일(政企合一)한 초특급국가회사 - 국유회사**

방권(放權)이후 재산권은 시장경쟁으로 제약을 하지만

하방한 행정권력은 법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

남겨진 개혁과제

➢ **토지, 독점국유기업과 가격개혁은 난관이다.**

A.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기득권 계층과의 싸움:

- **중국의 '증량개혁'(점진적 개혁) vs. 로시아의 '대쇼크'개혁:** 점진개혁의 문제점은 '진'이 쉽지 않다는 것,

  즉 위에서 언급한 행정권력이 시장에 들어 온 후 거대한 경제이익을 보기 시작하면 개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임.

  여기의 어려움은 인식상의 문제 혹은 순수 의식형태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아주 강경한, 실재적인 기득권세력과의 싸움으로 되게 된다는 것임.

- 현재의 어려운 개혁들이 모두 이것과 관계가 있음

B. 남겨진 개혁과제

- ***토지개혁:*** 토지재산권제도의 개혁에서 비농업용일 경우 국가가 강제로 구매해서 정부가 시장에 랜트함.

  이것은 아주 명확한 행정권력이 시장에 간섭한 대표적인 예임.

  왜서 농촌의 집체건설토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냐? 몇 년 동안 토론해왔지만 그리고 국부적인 실천경험도 있지만 왜서 전국적인 합법화를 못 시키냐? - 바로 권력의 시장수입이 너무 크기에 기득권계층들이 이를 막고 있는 것

  농민들의 집은 사적재산이지만 땅은 국가소유이기에 토지자원의 배분은 시장의 가격으로 움직이지 않음

  - 결과적으로 중국의 빠른 도시화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지의 낭비를 불러오고 있음.

- ***독점국유기업:*** 대형적인 독점국유기업은 점점 많아지고 커가고 있음. 개혁30년 이내 국가가 손해 보는 경우 모두 개혁하고 있음.

  문제는 남아도는 '높은 수익'부분임. 시장의 진입을 막고 혹은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고 벌어드린 고액의 이윤은 국민경제 전체에 어떠한 의미일가? – 아직도 토론 못하고 있음

- ***가격개혁은 미완성:*** 토지, 노동력, 금리, 환율, 이자율, 에너지, 기름, 전기, 석탄 등.

정치체제개혁의 필요성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핵심

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

기업분류	소속기관	관리 단위
중앙기업	국무원	國有資産管理監督委員會 관리(100개 기업)
부문기업	각 부처	해당 부처 관리
지방기업	지방정부	지방 國有資産管理監督委員會 관리

ㅇ 국유기업 5無: 기업의 독립성, 경영 자율성, 손익책임, 주주, 경영자

: 기업의 영도조직, 정치 공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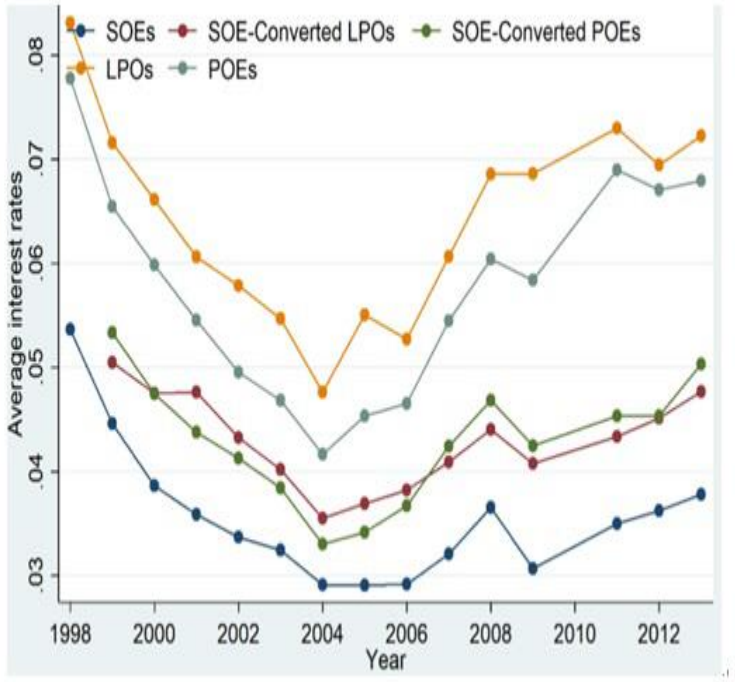
: 노동자 이익 대표, 지도 방침 제정

: 당과 노동자 관계, 노동자 권익 보호

"충칭모델"= '국유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뤄야 한다'

"광둥모델"= '시장에 무게를 둔 사회주의'를 강조

<그림> 중국 기업 소유구조별 차입 이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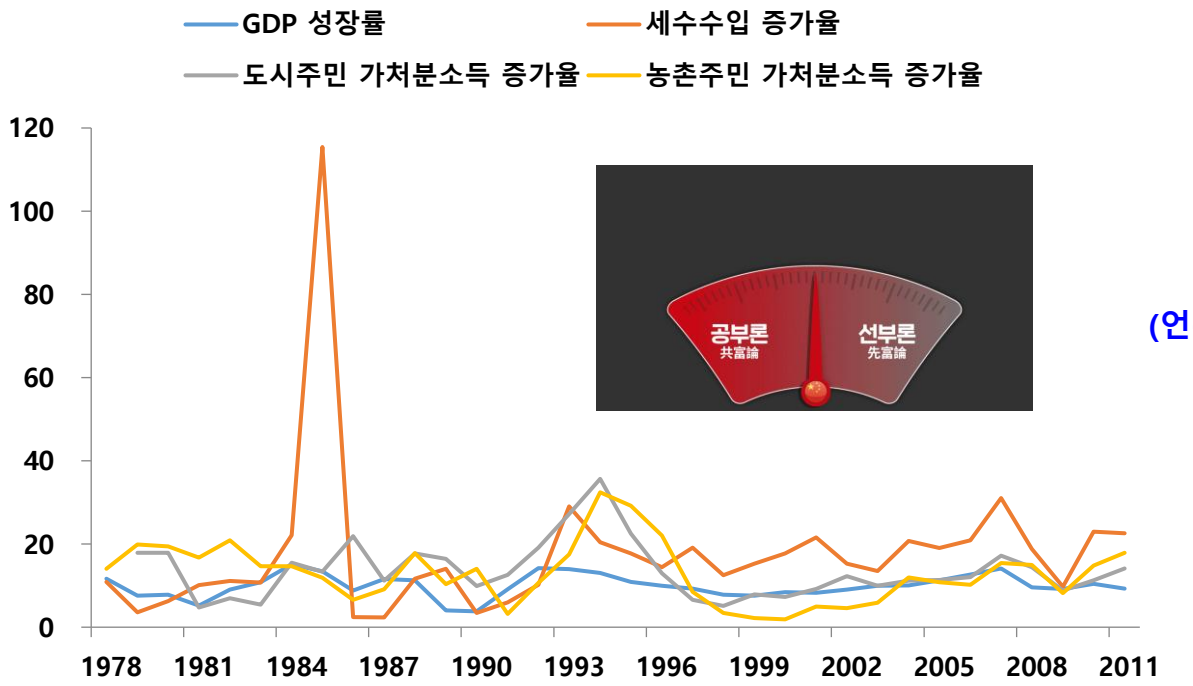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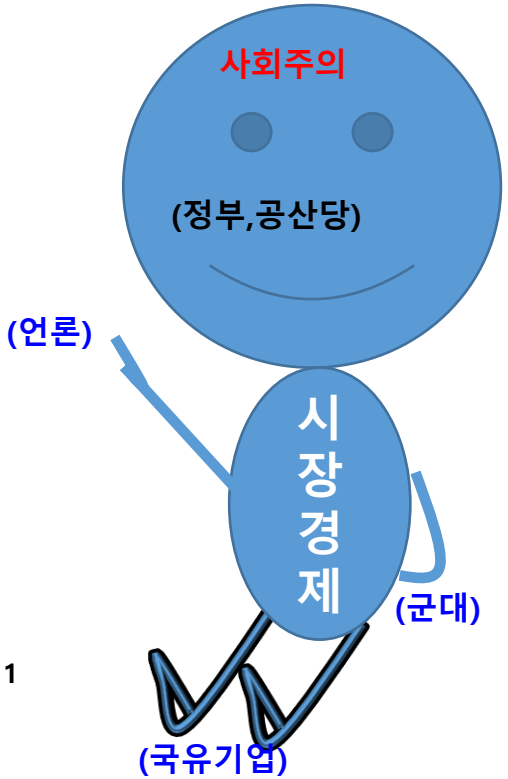
출처: NBER(2019), "CAN A TIGER CHANGE ITS STRIPES? REFORM OF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PENUMBRA OF THE 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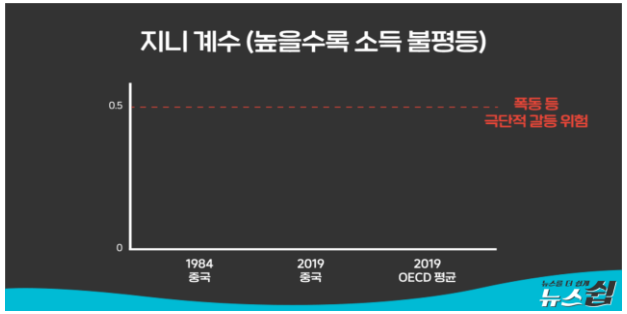
정치체제개혁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 중국 정부는 강력한 세금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어떤 지역에 어떤 산업을 육성할지 결정하는 자원 배분 권한까지 갖고 있음

- 중국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부의 규모는 지난 14년간 10배 성장했음
  같은 기간 도시 인구의 가처분 소득은 2.2배, 농민은 1.5~1.6배 정도 늘었음
- 정치개혁을 통해 정부가 너무 많은 부를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만 빈부격차 축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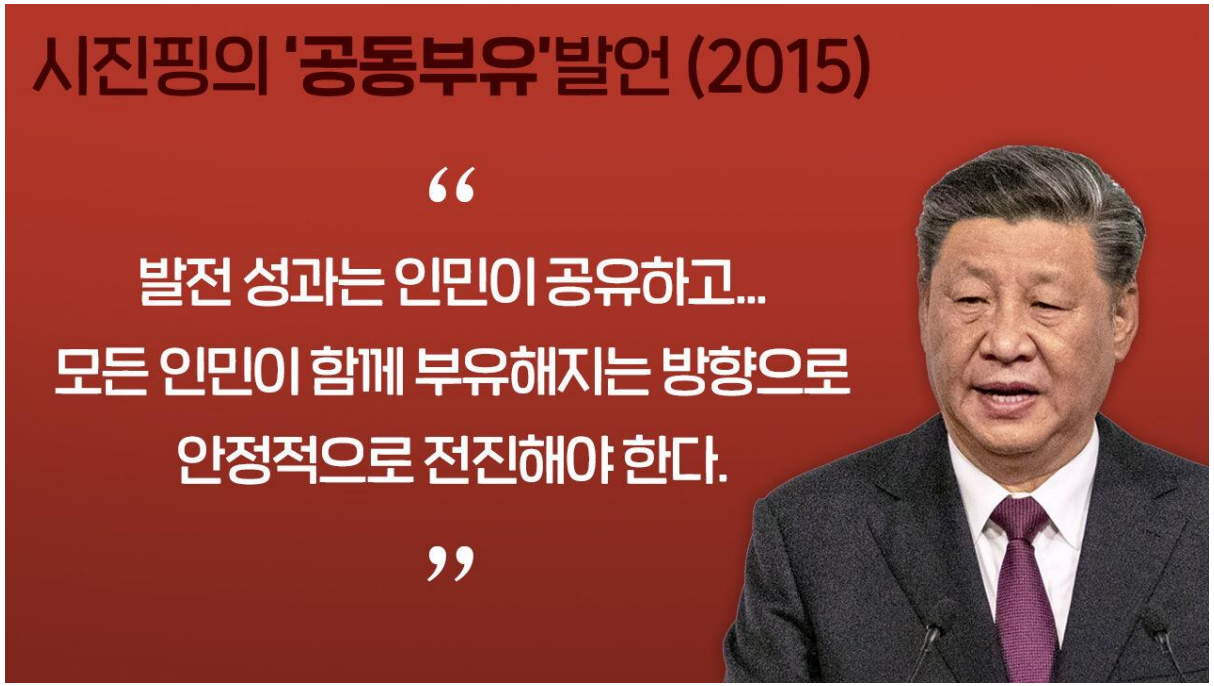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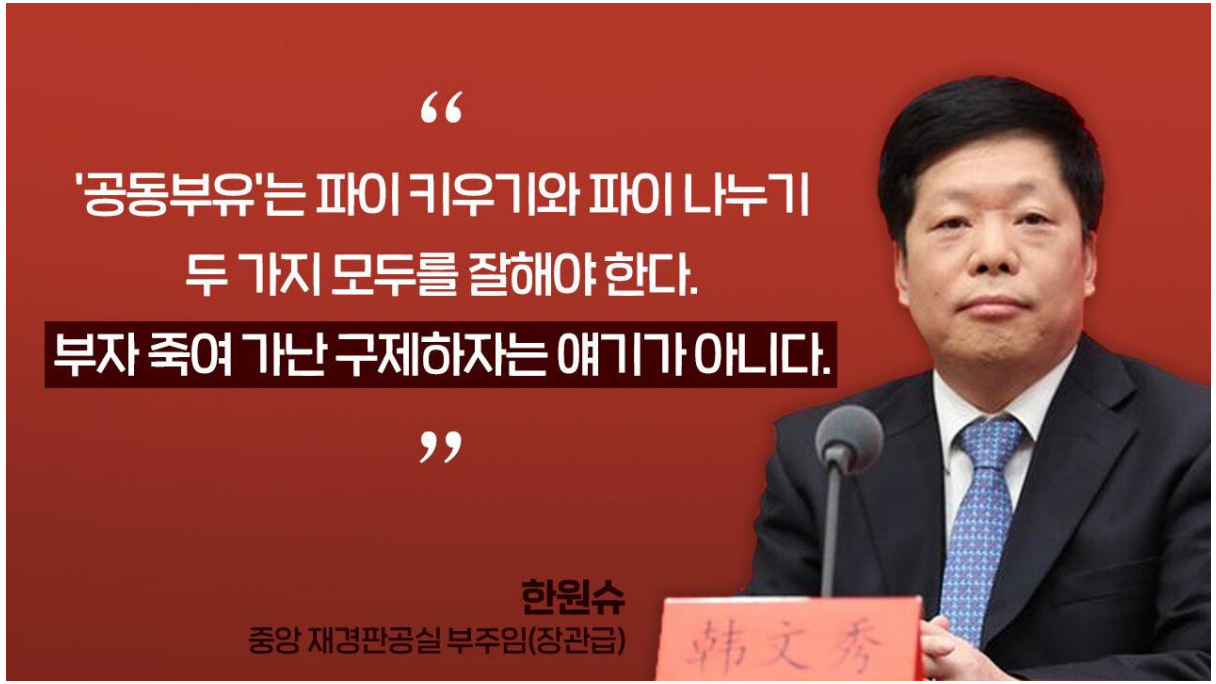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988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

시진핑의 공동부유의 함의

[격탕 다큐멘터리 동영상 31집
https://www.youtube.com/watch?v=mWe5OW5PWC8&list=PL6C78A4E52ADAC9F7](https://www.youtube.com/watch?v=mWe5OW5PWC8&list=PL6C78A4E52ADAC9F7)

1집의 13분쯤에 안휘성 18명 농민의 혈서 도급제 도입과 실천은 진리의 유일한 검증기준이라는 편집장의 사례가 있음





시진핑 핵심설의 본질은? – 정치체제개혁

제6중전회의와 시진핑의 독주?

인민일보-习核心

"零容忍"显反腐意志 "习核心"是众望所归

中共从严治党开启新征程

俄罗斯超级核武让西方惊悚

환구시보-习核心

14 国际论坛 环球时报 第4093期 2016年10月28日 星期五

"习核心"已经存在于人心和口碑中

■《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初中讀本

內地秋季開學前夕，國家教材委員會昨日明確要求把「習思想」全面融入大中小學課程教材。圖為習思想的初中學生讀本。（網上圖片）

習近平的語錄及照片，貫穿讀本每個章節（左圖）。而讀本的最後一章主題為「中國共產黨是民族復興的引路人」（右圖）。（網上圖片）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9880

정치경제시스템 개혁은 5세대 지도부의 과제

❖ **정치체제 개혁은 핵심**

- 제 2의 등소평이 나와야 가능

- **경제개혁이 미진한 경우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정치적 불안이 가중될 소지**

- 5세대 지도부가 취임하는 2012년 이후로 누적된 경제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속된다면 경제침체 가능성도 있음
- 5세대 지도부는 민간경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소비주도의 경제성장체제로의 개혁을 추진해야 함
- 기존 당의 기득권을 **상당부분 시장으로 이양하는 개혁인만큼** 5세대 지도부는 적절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확고한 개혁 의지를 발휘할 필요
- **경제개혁이 미진한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정치적 불안이 가중될 소지**

5세대 지도부 경제체제 개혁 주요업무

(1)정부 vs. 시장 - "국퇴민진"이슈가 핵심

- **국유독점업종의 개혁을 심화하여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작용을 발휘**
-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 공동발전, 민영기업 발전 촉진**
- **금융체제 개혁, 자원가격 개혁, 대외경제 체제 개혁**

(2) 공산당 vs. 공민 및 사회조직 - "제도 선진화(법제화), 정부 투명화"이슈가 핵심

- **법에 따라 행정과 사회관리 혁신을 추진, 정부업무공개 확대와 감독보완**
- **행정체제 개혁**
-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확립 필요: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사회적가치**

(3) 경제발전 vs. 사회복지 건설 - "사회보장제도 구축" 이슈가 핵심

- **사회사업, 소득분배 등 개혁을 추진하여 사회 공평정의를 효과적으로 보장**
- **사회보장제도 개혁**

(4) 도시 vs. 농촌 - '토지개혁' 이슈가 핵심

- **공업화, 도시화, 농촌현대화 추진**
- **농촌개혁(본질은 토지개혁)**

(5) 중앙 vs. 지방 - '세제개혁' 이슈가 핵심

- **각급 정부사이의 재정분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
- **재정.세수 체제개혁**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운영 방향

❖ 당이 과거 '혁명을 위한 당'에서 벗어나 '통치를 위한 당'으로 변화
❖ 당은 '시장개혁'과 '체제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ㅇ 당은 체제유지 범위에서 시장개혁을 진행 할 것임
  ㅇ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기업 육성 목표는 체제유지 범위에서 진행 될 것임

• **시진핑지도부는 '경제안정'과 '사회안정'범위 내에서 중국경제의 시장화 개혁과 정치민주화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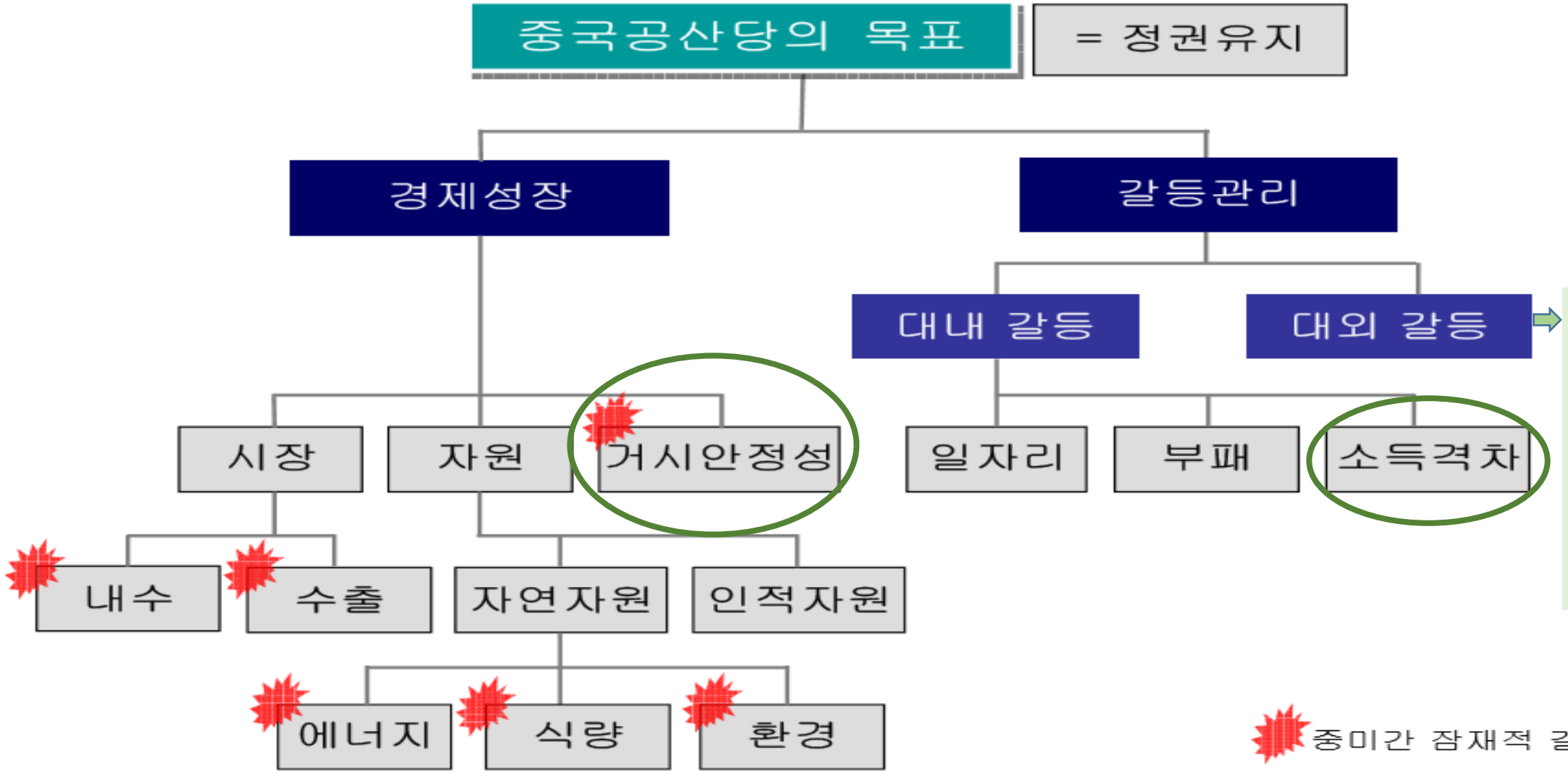
사회안정

- 치안 및 언론.인터넷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사회보장체제 구축
- 빈곤층 지원방안 확대
- 국유기업 지배구조 강화와 배당확대
- 공산당 내부의 민주적 발전, 간부 인사제도 개혁
- 처벌과 부패 예방

경제안정

- 부동산시장 안정발전 유도
- 민간투자 건전한 발전 유도
- 7대 전략산업 및 교육과 녹색산업 육성
- 에너지확보와 개발 추진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의 목표



'이념갈등'

- 세계는 아주 강하고 발전된 공산당 일당독재의 사회주의 중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 대만문제

중국의 부동산경제는 일본의 80년대-90년대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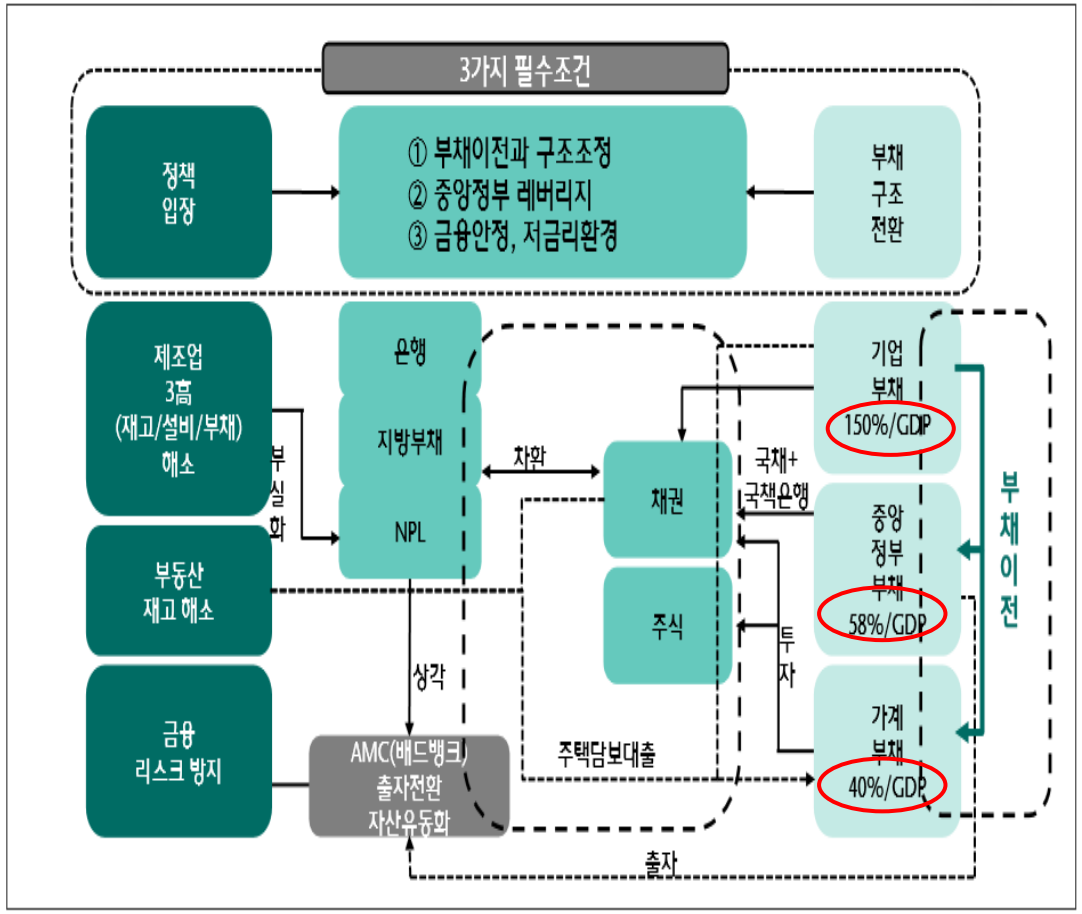
중국과 일본의 거시경제 지표 비교

항목	일본(1990년)	중국(2022년)
노령화수준	12%	12%
1인당 GDP	19973 RMB	19338 RMB
가게 부채율	60%(1994)	63%(2019)
M2/GDP	187%	216%
민간대출/GDP	190%	180%

자료: 세계은행, wind, CSAI
주: 1인당GDP는 구매력평가 기준(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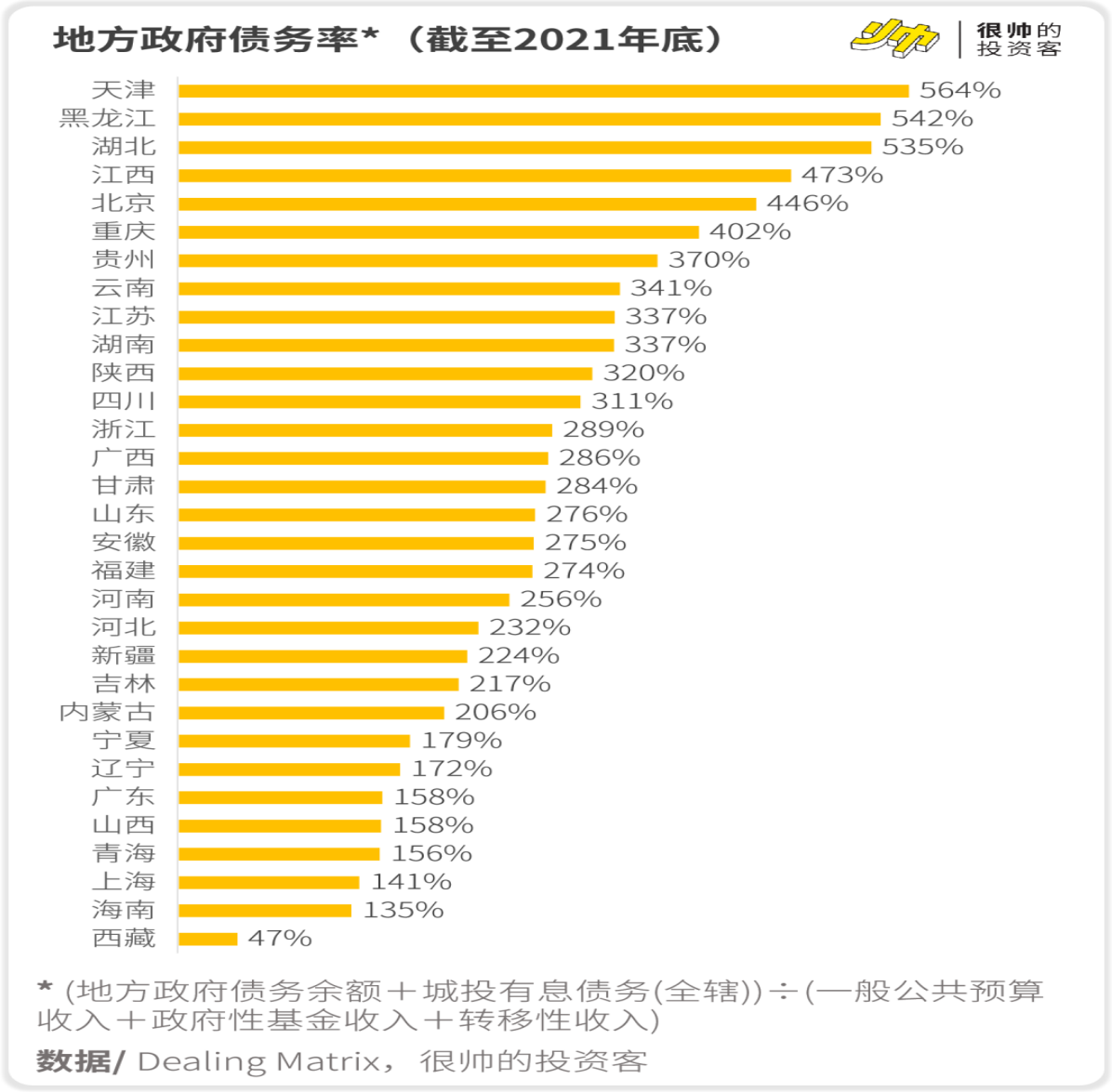
<2015년부터 레버리지 주체 전이를 통한 부채 위기 극복정책>

정부의 3가지 대응 : ① 부채이전과 구조조정, ② 중앙정부 레버리지, ③ 금융안정과 저금리 환경 유지



자료: 하나금융투자

정부부채율



图表：地方政府严重依赖土地财政

资料来源：财政部，国家统计局，泽平宏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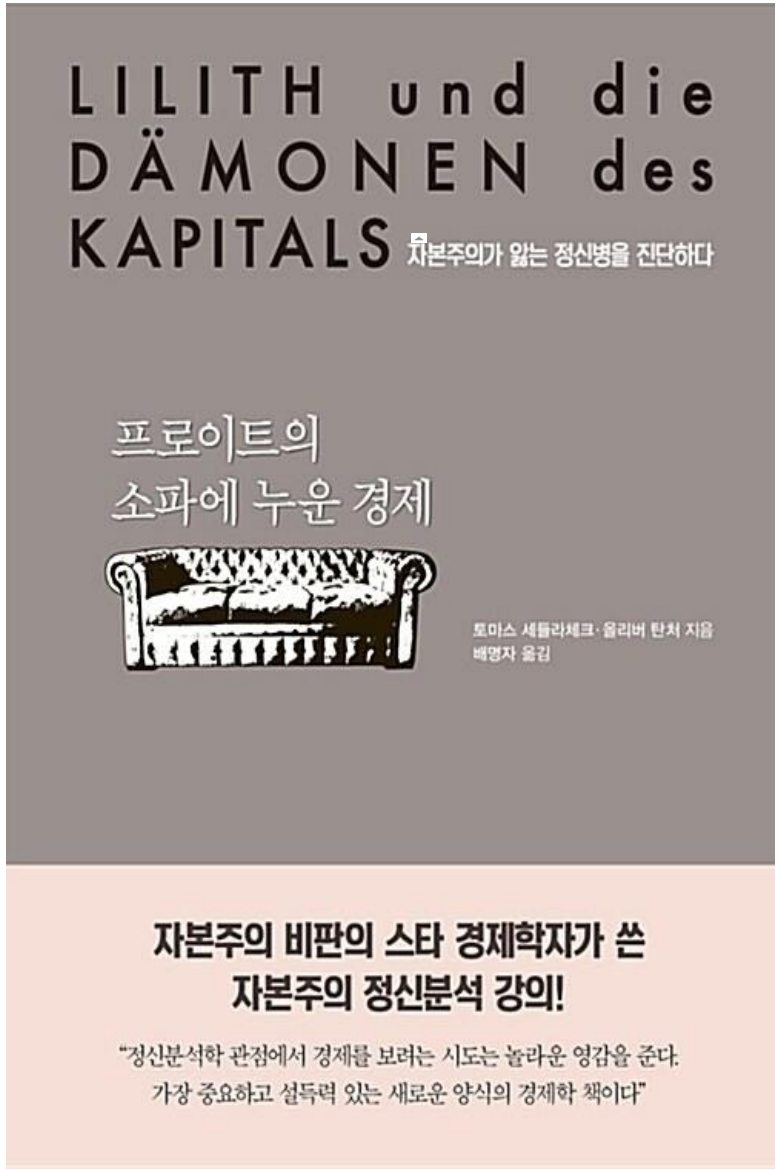
해결방안:

(1) 신채환구(新债换旧债):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여 기존 부채 상환

(2) 은행부채 만기 연장 20년: 금리도 기존의 4~7%에서 3%대로

(3) 부채의 주식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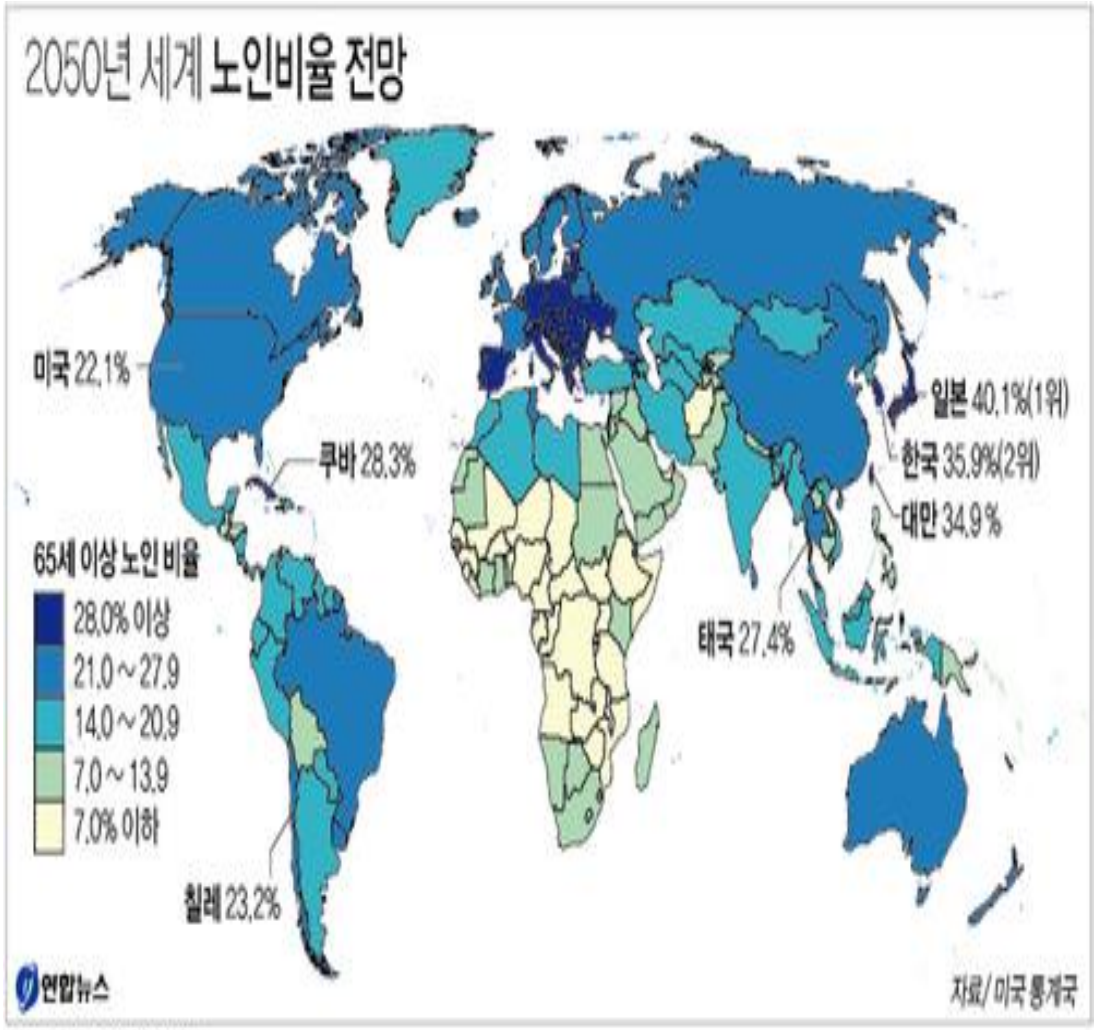
소파에 누운 경제시대 -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부채로



우리 시대의 좌우명은 굶주린 사람이 아니라 배부른 사람을 먹이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을 음식으로 행복하게 하기는 쉽다. 그러나 **배부른 사람을 먹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심리학이 동원되어야** 한다. 광고, 영업, 마케팅. **광고란 결국 자극적인 방식으로 없는 허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 더보기

조증은 우울증 못지않게 위험하다. 두 경우 모두 몰락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안정을 포기하고 성장을 구매하는 일이 우리 시대 적절한 삶의 방식으로 통했다. **어리석은 바보나 1만 유로를 빌린 뒤 1만 유로만큼 부자가 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1만 유로는 재산이 아니라 그냥 빚이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3퍼센트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이 돈을 경제에 투자해서 그해 국내총생산이 3퍼센트 증가하면, 톱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모두가 환호한다. 그러나 자기 돈과 빌린 돈에는 큰 차이가 있다.
부채생산이다. 우리의 부채 제국, 모래성은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커졌다. 그렇게 호황 속에서 조증을 발달시켰다. 위기가 오기 전에 부채를 상환하고 경제의 맥박을 진정시켰어야 했는데,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정확히 그 반대의 행동을 했다. 국가의 어깨에 부채를 과적했고, **마약중독자가 결국 빚더미에 앉는 것처럼 국가는 적자로 인해 불안정하고 나약하고 의존적이 되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위험천만한 위치에 도달했다.
— 2부 '폴리크라테스와 헤도마조히즘'에서 접기

고령화의 세계 - 생산성과 소비가 모두 하락



https://www.yna.co.kr/view/AKR20160330008200072

'세계의 공장' 중국이 늙어간다… 주거-교육비에 출산 기피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128/111503340/1

WTO를 대체하는 지역간 무역협정은 '보호주의' 경향

- ❖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효율성'보다는 '국가안보' 중요시
- ❖ 21세기 무역협정은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니라 생산의 분업화 · 외국인투자 · 사람과 아이디어의 이동 · 지적재산권 등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자주의 WTO가 아니라 CPTPP 등 '깊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deep R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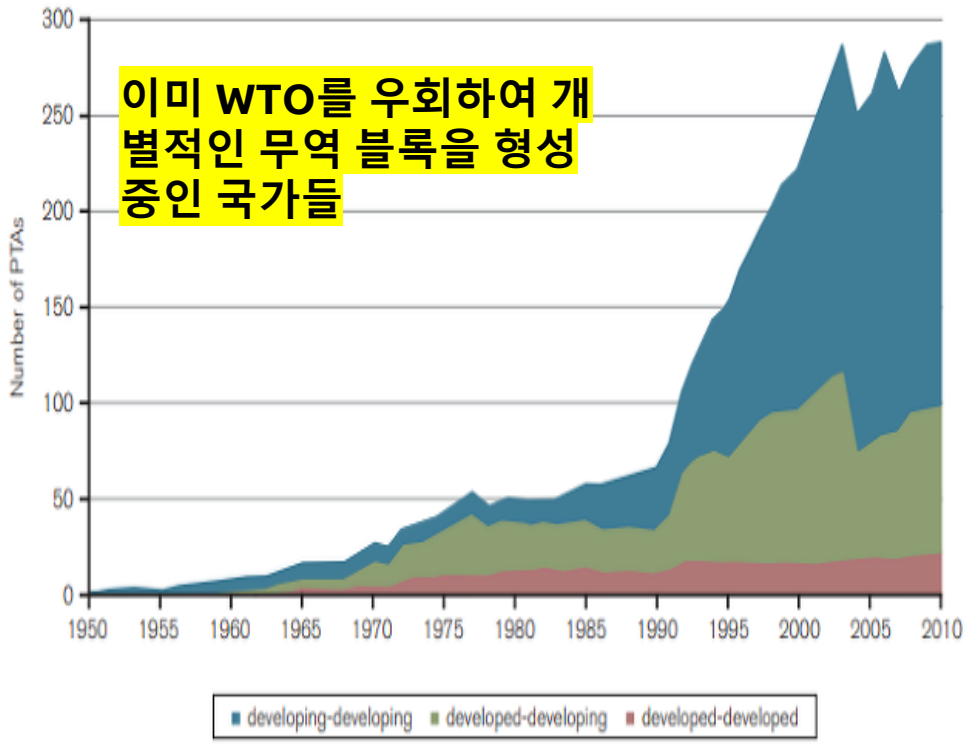
CPTPP-RCEP-IPEF 비교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발효 여부	2018년 12월 발효	2022년 1월 발효	추진 중
목적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와 경제통합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활성화와 교역시스템 확립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연대 심화
주도국	일본	중국, 아세안	미국
세계인구 비중	6.7% (5억1000만 명)	29.9% (22억6000만 명)	미정
세계GDP 비중	12.9% (11조3000억달러)	30.0% (26조3000억달러)	미정
세계무역 비중	15.3% (2조9000억달러)	28.7% (5조4000억달러)	미정
자유화 수준	상품 관세 99% 철폐	상품 관세 91~94% 철폐	미정

CPTPP 가입 시 경제 효과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42638781

1950년~2010년, 특혜무역협정 누적 건수 추이



출처 : WTO World Trade Report 2011 'The WTO an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From co-existence to coh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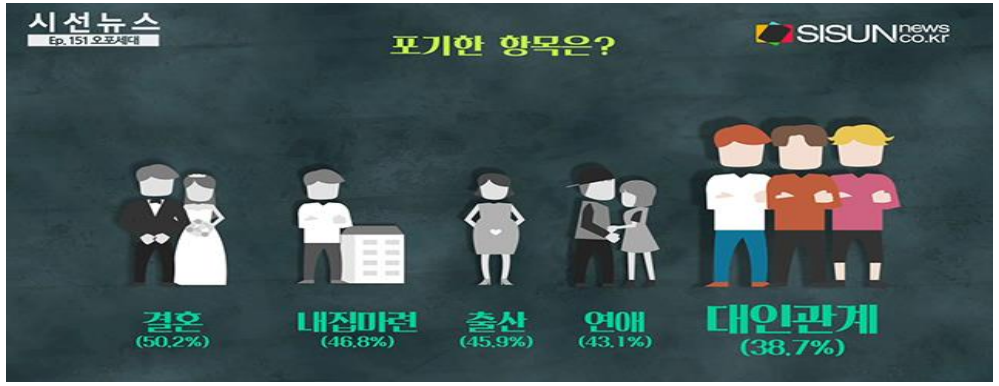
출처: 끝이 보이는 WTO 체제, 새로운 무역체제가 만들어질까?
https://chojoohyeon.com/?p=4650

욕망을 포기하는 젊은 시대

N포세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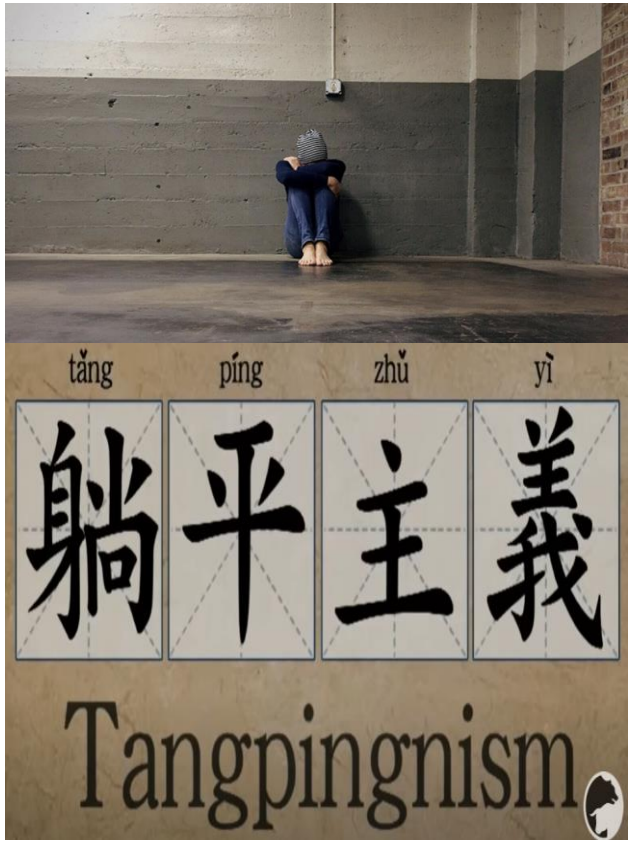
N포세대는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이다. 처음 삼포세대로 시작되어 'N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확장되었다. 삼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며, 오포세대는 집과 경력을 포함하여 5가지를 포기한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

- **삼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 **사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 **오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
- **육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 취업
- **칠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 취업,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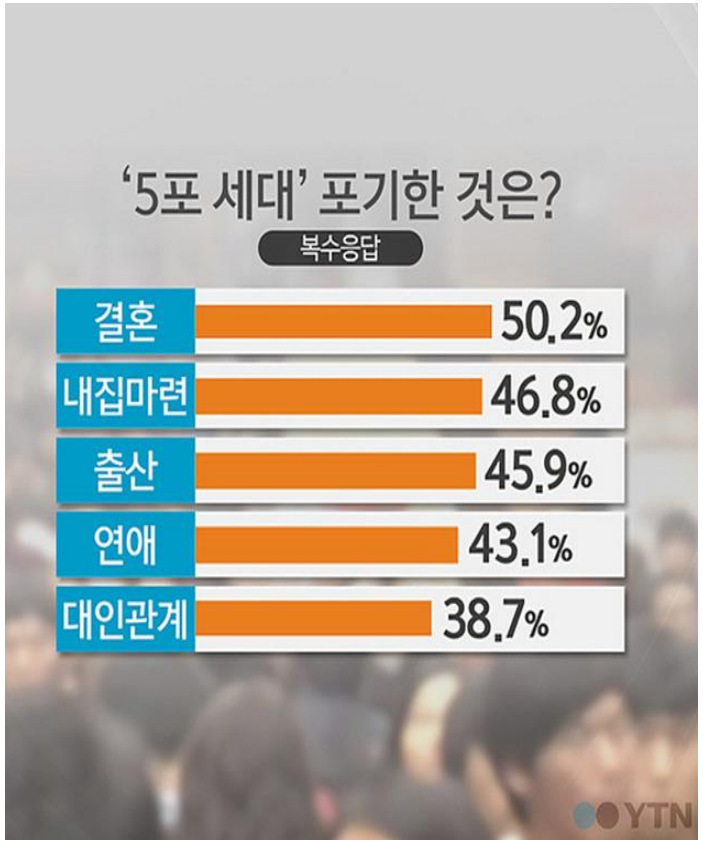
Libidinal Economy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LYOTARD)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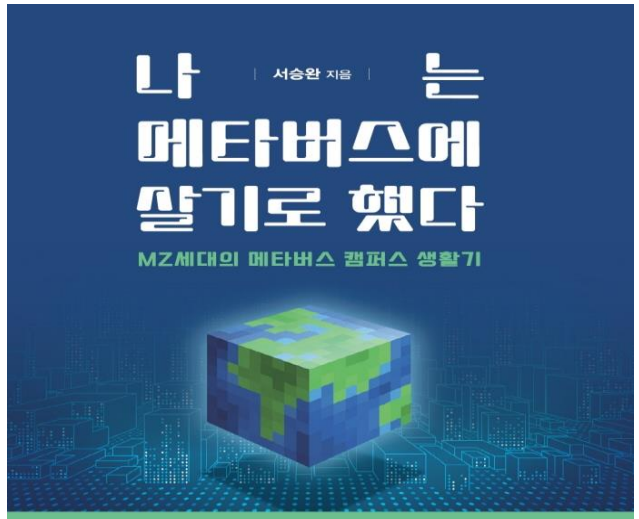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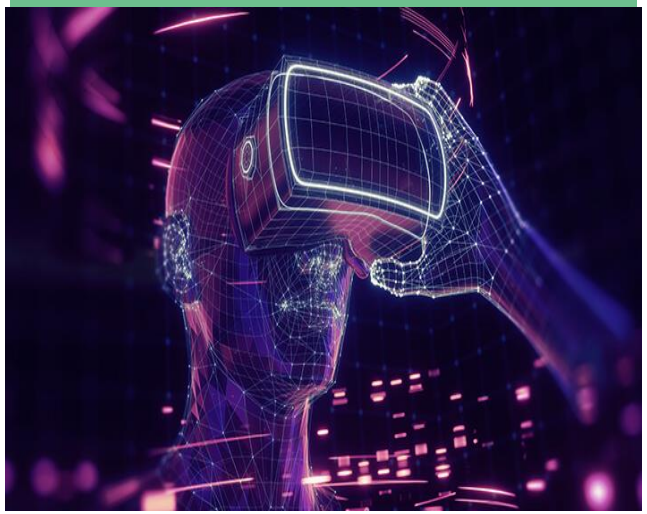
오포세대, 집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쉼터 2016.12.11.09:00



‘물질적 욕망’ 경제(Libidinal economy) VS. ‘ 도파민’의 경제(Dopamin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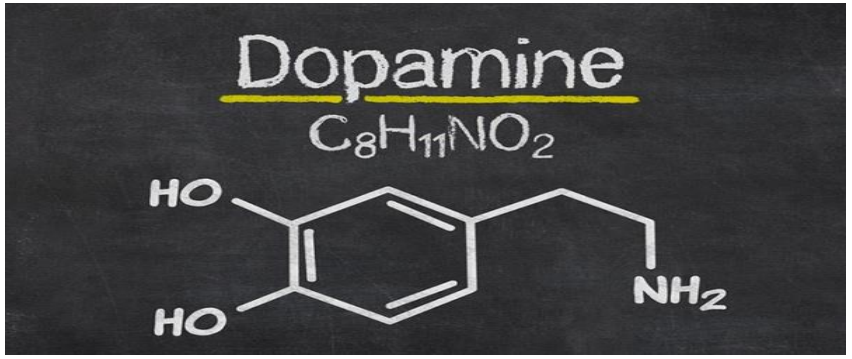
MZ세대가 사는 세상, 메타버스

https://cpro95.tistory.com/320

메타버스로 살아가는 시대
‘소유’보다 ‘공유 ' 의 시대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은
메타버스 콘서트를 열었음

(출처: Travis Scott 유튜브)



매일경제
현실서 못사는 구찌, 여기서라도…' Z세대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이유? - 매경프리미엄

주요 연구기관들의 중국경제 중장기 전망

❖ 중국 국무원산하 발전연구중심(2030년 중국경제보고서, 2011.4): 내수확대·민생개선· 기술혁신·환경친화 등으로의 경제발전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2016~2025년 중 5%, 2026~30년 중 4%선의 저성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미국 Conference Board(세계경제전망, 2012.11): 고령화 등 영향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2014~18년에는 평균 5.5%, 2019~25년 3.7%에 그칠 전망, 반면 미국은 2013~18년 평균 2.3% 성장률 기록 전망

시나리오	구분	2008	2010	2011~15	2016~20	2021~25	2026~30
표준	연평균 성장률, %	-	10.4	7.9	7.0	6.6	5.9
	1인당GDP, 달러	3,263	3,784	5,371	7,358	9,971	13,217
발전방식 전환	연평균 성장률, %	-	10.4	8.4	7.2	6.6	5.8
리스크 확대시	연평균 성장률, %	-	10.4	7.0	5.7	5.1	4.3

주 : 1인당 GDP는 2008년 가격기준, 환율변동 배제
출처: 2030년 중국경제보고서(국무원 발전연구센터, 2011.4)

중국경제 성장율 하락은 불가피

❖ **'뉴노멀'에서의 잠재성장률은 거시정책 수행의 판단 준거가 될 것으로 보임**
- 성장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환경비용, 사회수요변화, 기업구조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
* 중국경제의 잠재GDP 성장률이 2007년 이전(10% 내외)에 비해 하락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얼마(8% 내외 또는 6~7% 내외)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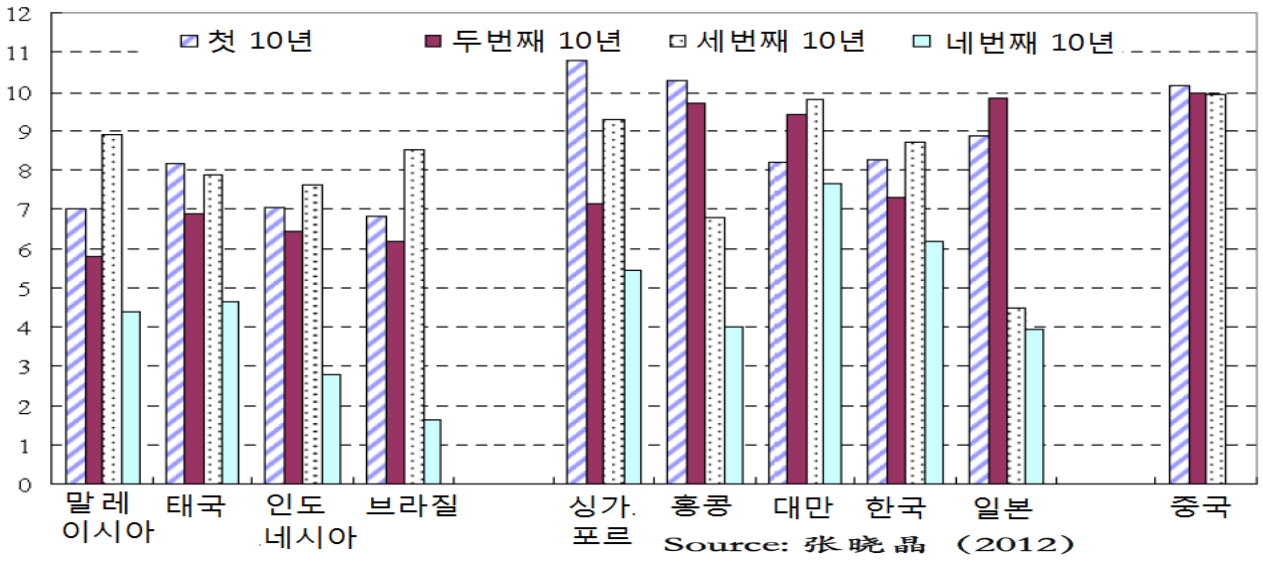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 모형에 의하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2013년에 비해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

✓**(환경비용)** 대기오염 관련 환경비용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석탄을 천연가스로 전환할 경우 에너지 원가가 30% 상승**

✓**(사회수요변화)** 가계의 소득수준 상승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데**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낮아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

✓**(기업구조)** 국유기업 개혁의 결과 생산성이 높은 **민간 및 혼합제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 잠재성장률 상승요인으로 작용**

<신흥국 경제발전 40년 변화추이 비교 (단위: %)>



<한-중-일 20년 시차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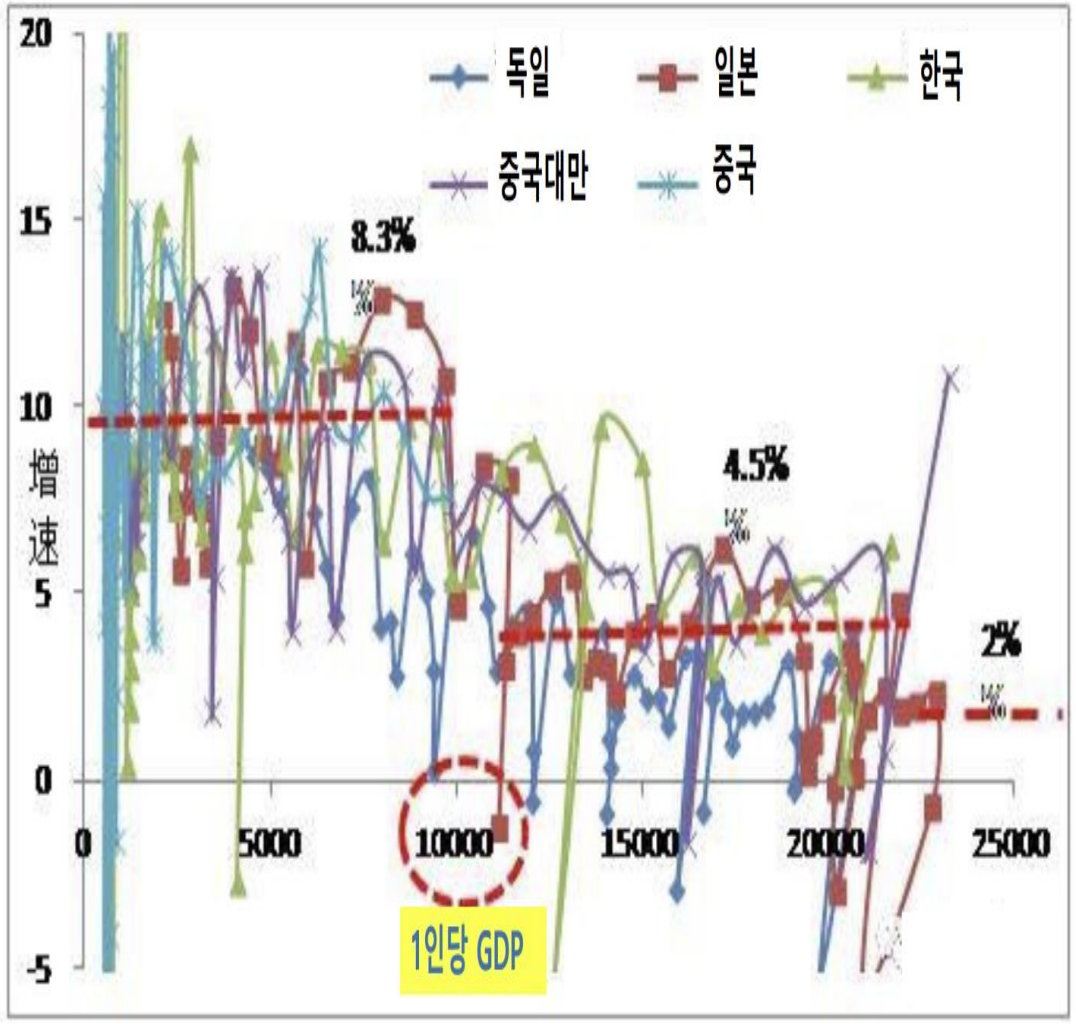
•고속성장 시대에서 중고속 성장 시대로 진입. 한국과 일본의 성장 경로와 매우 유사

	고성장기	중성장기	저성장기
일본	1959-73 (15년간 연평균 성장률 8.9%)	1974-1991 (18년간 연평균 성장률 4.2%)	1992-2011 (20년간 연평균 성장률 0.8%)
한국	1963-91 (29년간 평균 성장률 9.5%)	1992-2011 (20년간 평균 성장률 5.1%) 일본보다 18년 후행	2012- 일본보다 20년 후행?
중국	1982-2011 (30년간 평균 성장률 10.2%)	2012-? 한국보다 20년 후행?	

자료: 신은만국증권, 장사원

중국경제 성장율 하락은 불가피

➢ 1인당 GDP 10,000$ 실현 이후 거의 대부분 국가의 성장율 6% 아래로 떨어짐



전체 사회 자본이익률 하락

수요측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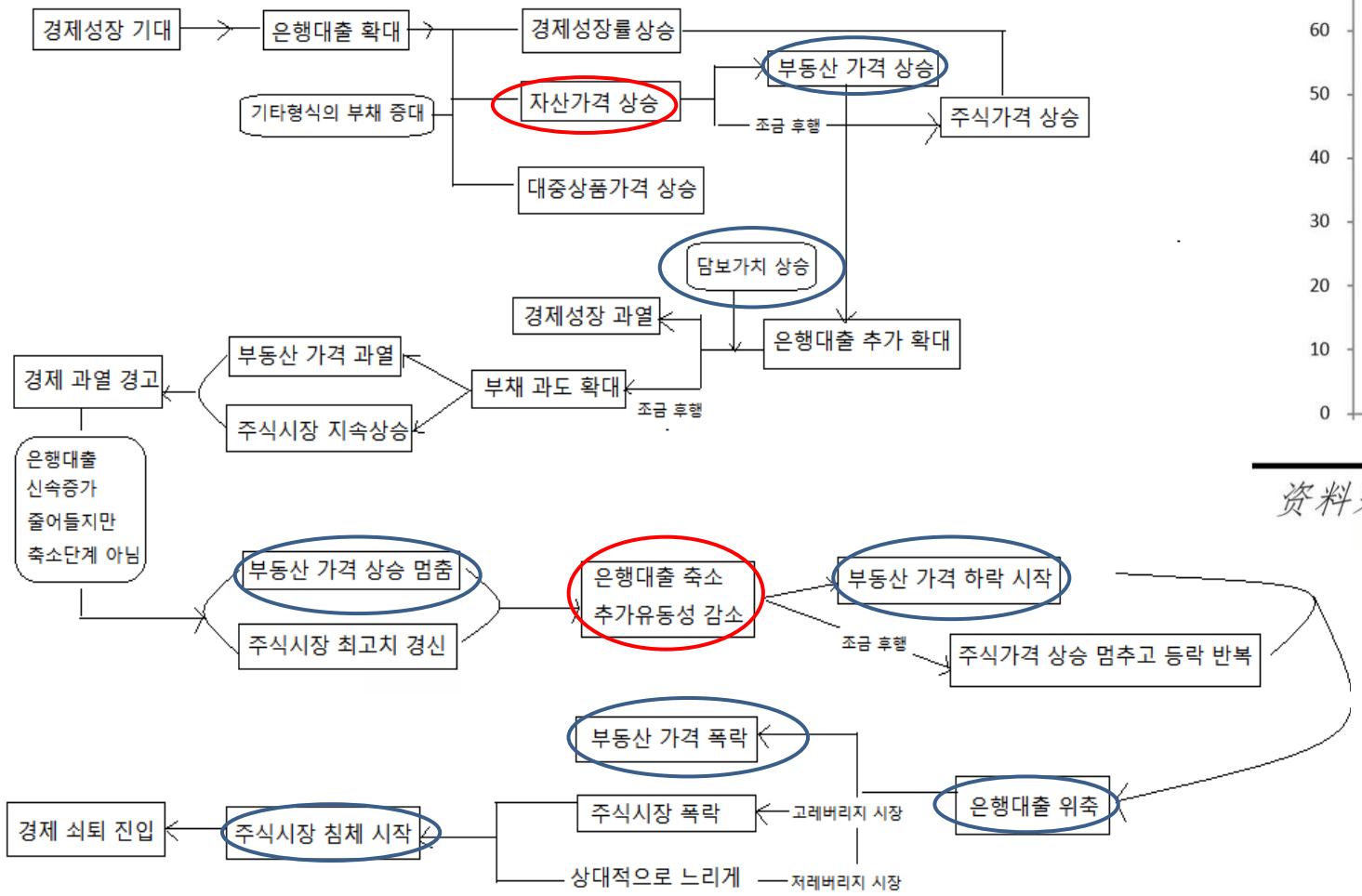
$$ROE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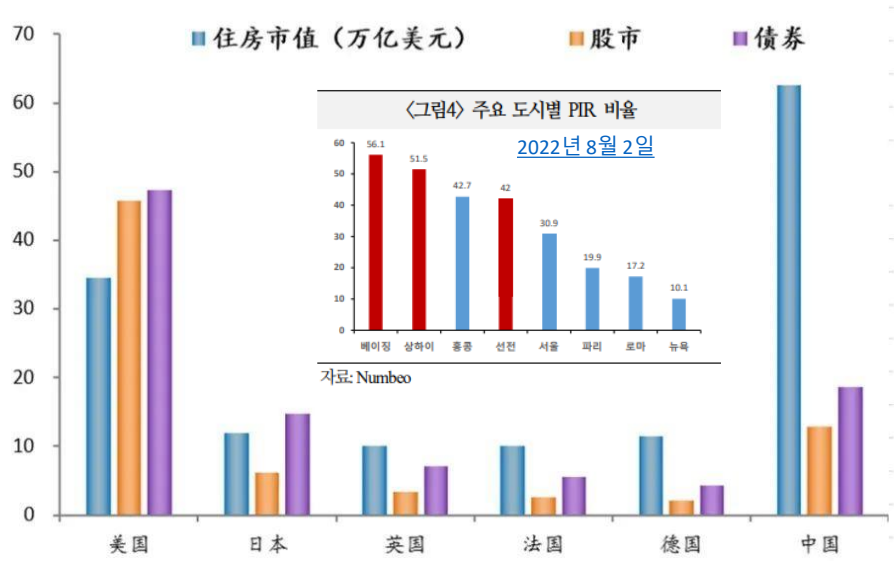
공급측 개혁

중국경제위기 가능성 - '토지의 화폐 창출 기능 '

<경제금융위기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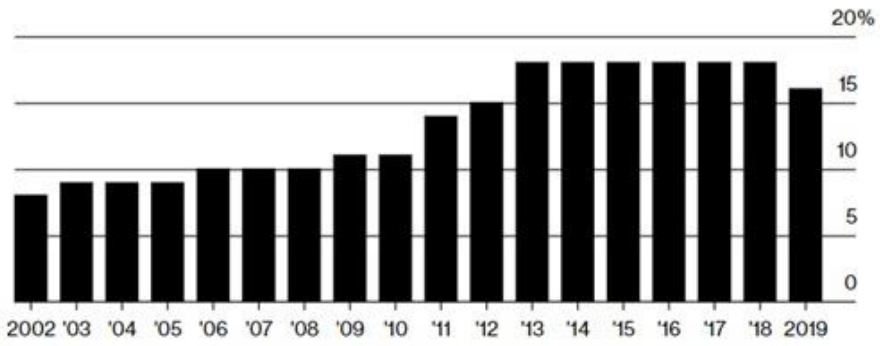
图表：2020 年主要国家住房市值概览



资料来源：BIS，各国统计部门，泽平宏观

泽平宏观

<그림> 부동산·건설 부문이 도시지역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Dat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a, Rogoff and Yang (2021)

https://www.etoday.co.kr/news/view/2068146

중국경제위기 가능성 - '토지의 화폐 창출 기능 '

정부 대응 방안

❖ 현재 부실대출을 처리하는 방식과 채널은 더욱 다양화됨

(1) 자산관리공사: 현재 4대 국유자산관리공사와 25개 지방자산관리공사(각 성마다 자산관리공사 설립 허용)가 있음. 일부분 자산관리공사는 상장되어 융자 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일부 민간자본도 은행의 부실자산을 할인해서 인수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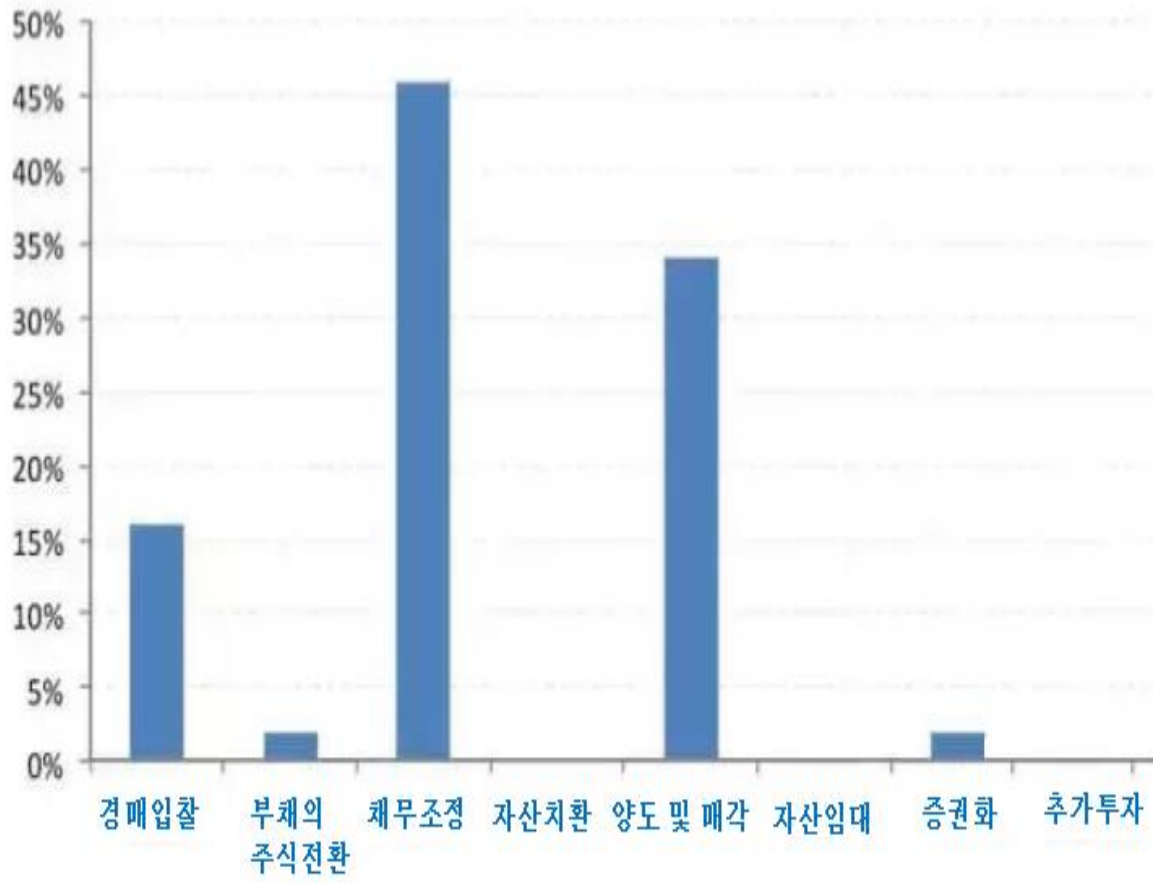
(2) 자산증권화: 중앙은행은 이미 부실자산증권화 시범을 시행. 현재 부실자산 증권화는 다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증권화 상품은 기관투자자들에 한해 판매 가능

(3) 자산거래플랫폼: 일부분 지방에서는 **자산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실자산을 패키지로 매각하고 있음.** 저금리 환경 하에서 국내와 역외투자자들은 수익률 추구가 핵심인데, 하나의 개방되고 효율적인 자산거래시장은 부실자산의 잠재적 가격을 발견하기에 유리하므로 앞으로 지역자산거래소 중심으로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금융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4) 대출부실준비금으로 부실대출 구매하여 회계처리

❖ **현재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부실대출을 연기해주거나 (이 때문에 시체기업 존재) 은행들이 손실을 인정하는 것임. 이 두 경우 모두 은행업과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상황**

<그림>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 처리 방식



자료: 중국동방자산관리공사(2015), CSAI

‘재정의 화폐화(Monet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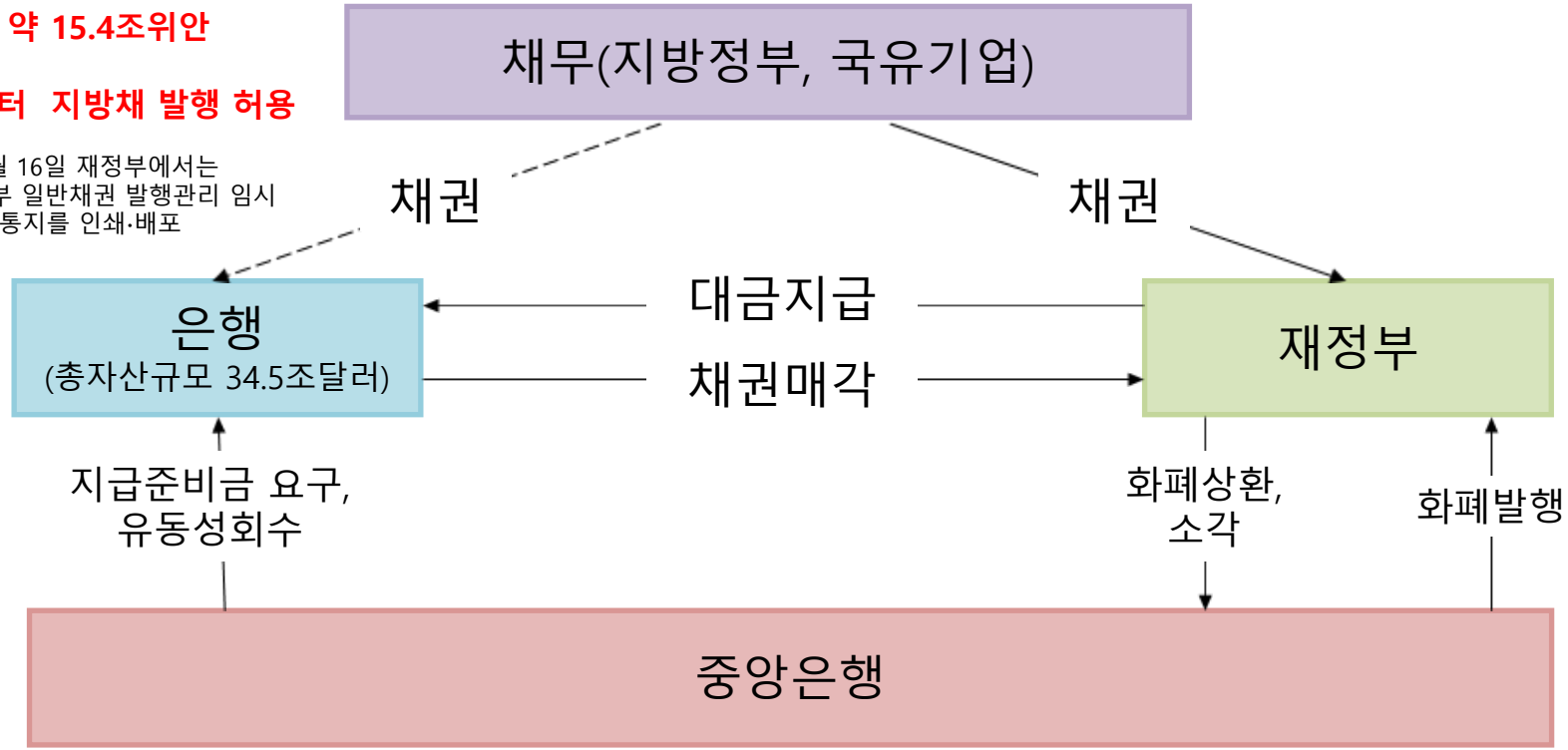
❖ **부채율에서 분자인 부채로 볼 때** 부실대출을 분리하여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것이 우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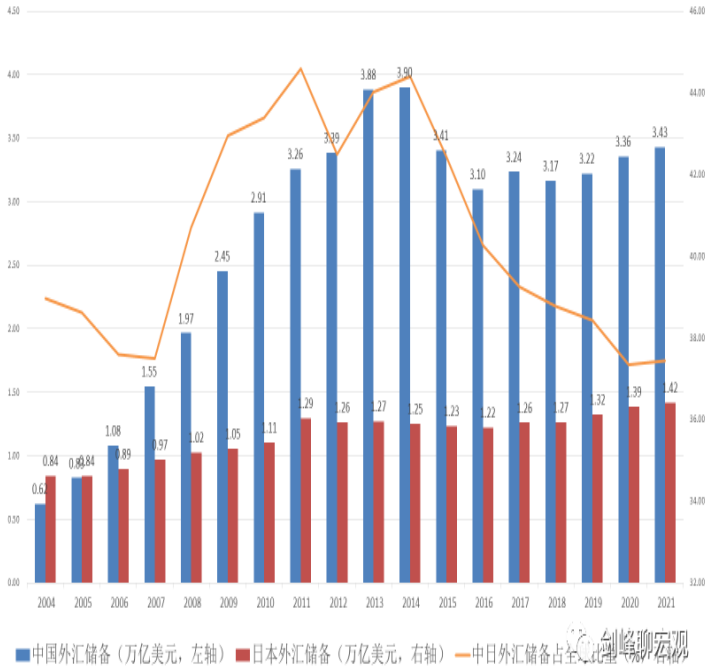
➢ 90년대 말 중국은 은행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여 **은행에 자본금을 투입한 이외에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은행의 대량의 부실대출을 분리

’15년말 약 15.4조위안

‘15년부터 지방채 발행 허용

2015년 3월 16일 재정부에서는
《<지방정부 일반채권 발행관리 임시 시행방법>통지를 인쇄·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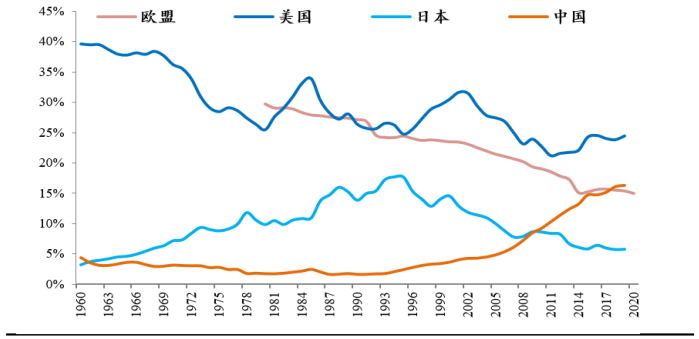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
https://namu.wiki/w/%ED%98%84%EB%8C%80%ED%99%94%ED%8F%90%EC%9D%B4%EB%A1%A0

세계에서의 중국경제 비중

중국, 미국, EU의 세계경제 비중

- 중국 GDP는 2020년 코로나 이후 2021년 5.48% 달성, 2025년에 5.07% 예상
- 중국경제 세계경제의 18.1% 차지, 미국경제 비교 82.6% 수준 도달

图表：1960-2020 年美国 GDP 占比从 39%降至 25%，中国从 4%升至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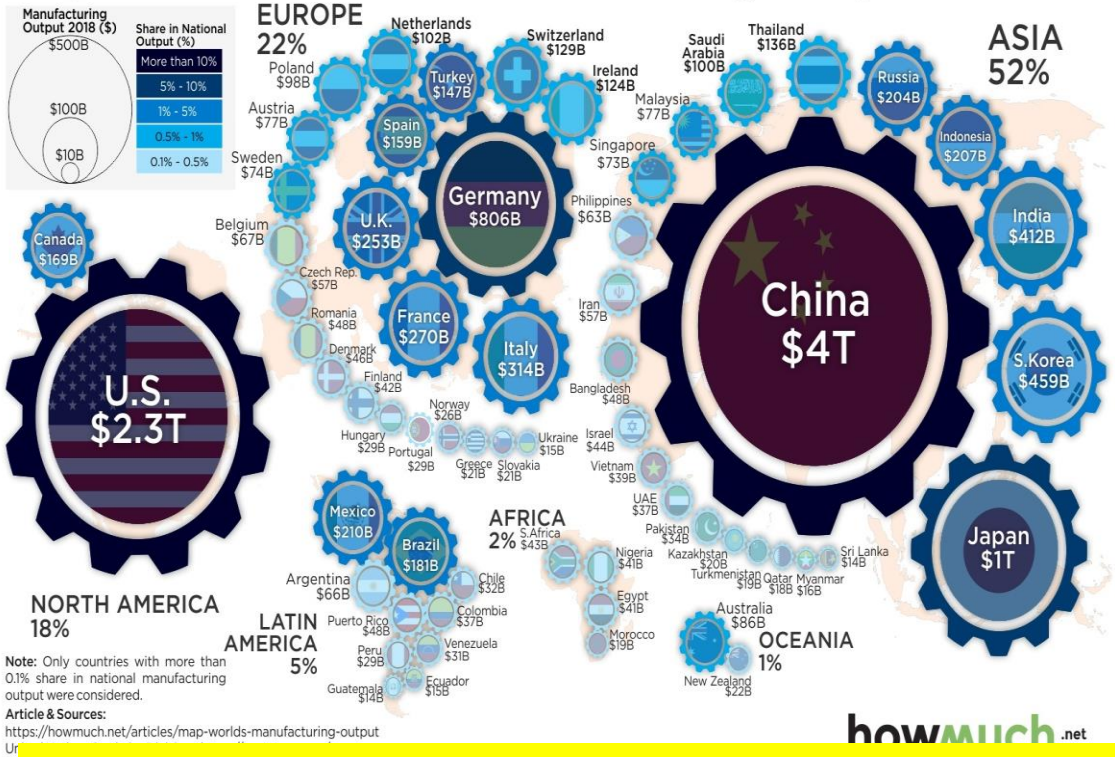


资料来源：Wind，泽平宏观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중요성: '세계공장+시장'

Countries with the Five Largest Manufacturing Industries
1. China: $4T (28.37% of world total)
2. United States $2.3T (16.65% of world total)
3. Japan: $1T (7.23% of world total)
4. Germany: $806B (5.78% of world total)
5. South Korea: $459B (3.29% of world total)

Map of the World's Manufacturing Output



'요소수 대란의 원인 - 비용 커버와 규모가 되는 국가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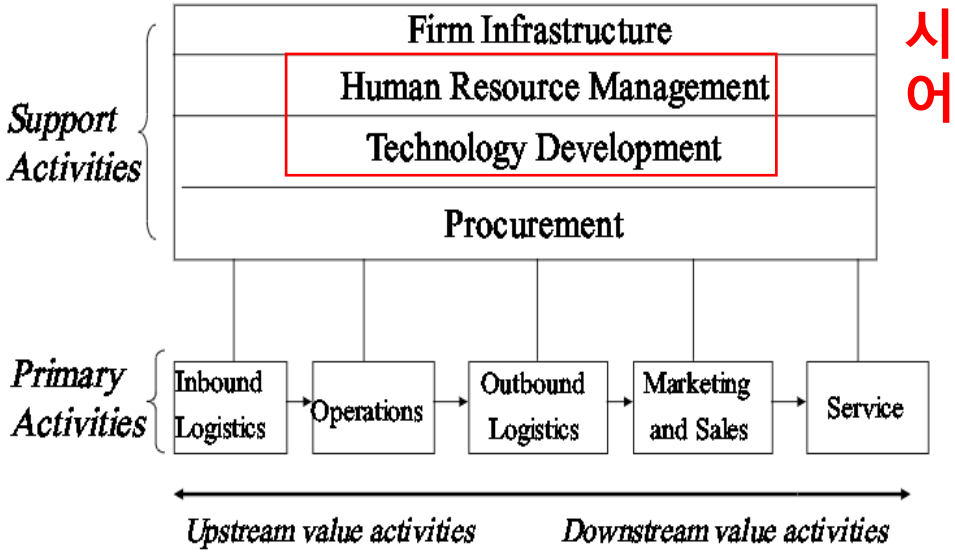
Politics

Japan to Fund Firms to Shift Production Out of China

GVC의 탈중국화가 가능한가 - '리쇼어링'(RESHORING)

By Isabel Reynolds and Emi Urabe
2020年4月8日 GMT+8 下午3:26 *Updated on 2020年4月9日 GMT+8 上午8:07*

Porter's Value Chain



시장은 어디에?

중국의 무역통계-2020년 WTO보고서

MERCHANDISE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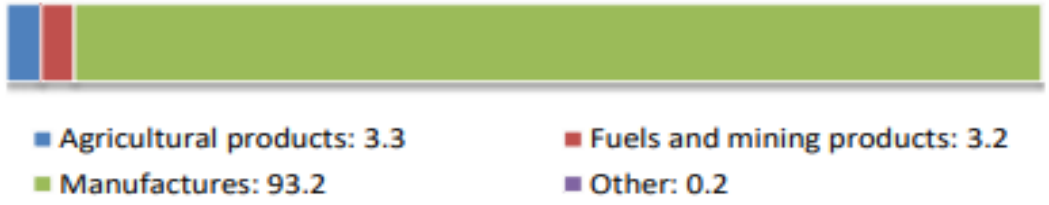
Million US$	Value 2019	Annual percentage change 2010-2019	2018	2019
Merchandise exports, f.o.b.	2 499 304	5	10	1
Merchandise imports, c.i.f.	2 077 967	5	16	-3

	2019
Share in world total exports (%)	1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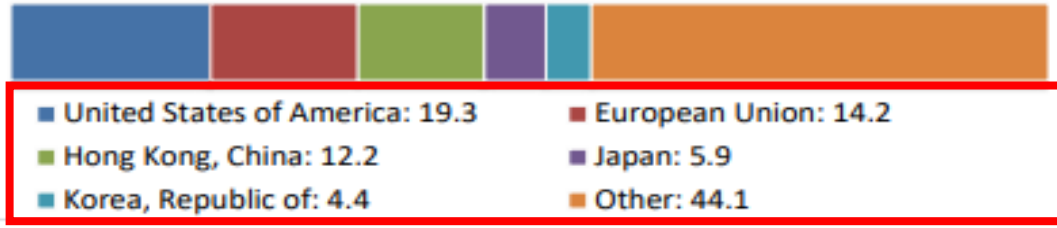
	2019
Share in world total imports (%)	10.80

Breakdown in economy's total exports

By main commodity group,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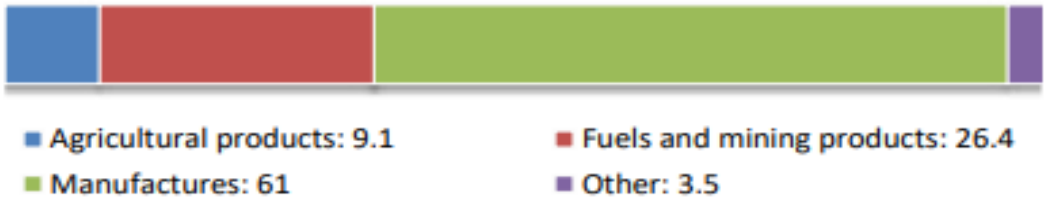


By main destination,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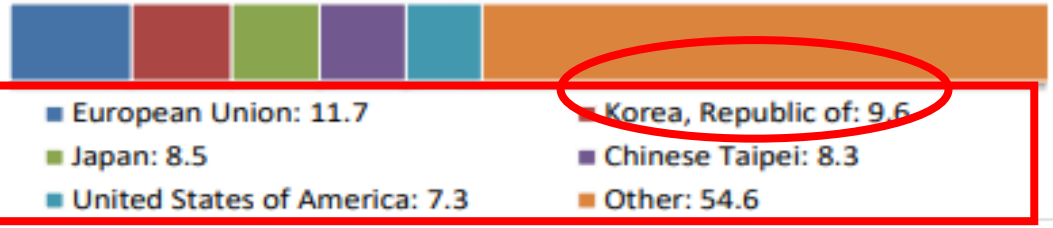


Breakdown in economy's total imports

By main commodity group, % (2018)



By main origin, % (2018)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rade_profiles20_e.pdf

혁신경제의 밸류체인 변화

"다시 말하자면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은 누군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가 곧 직업이 되는 것이다. "

- 존 호킨스

IP의 주된원천은 고객의 니즈,
고객 만족의 핵심 차별화는 IP

IP·CR의 선순환

(IP-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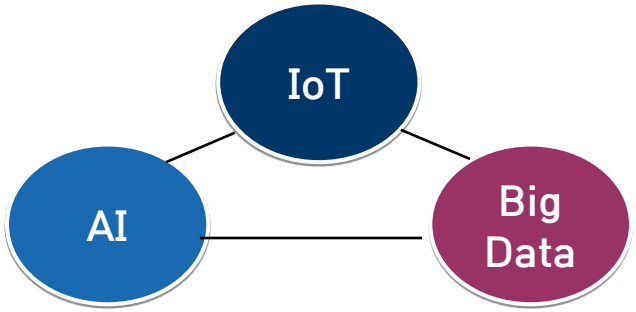
➢ 창조경쟁력 = 창조지수 × 고객규모
IP × CR

지식사회에서 지적재산권 사회로 이동: 창조 경제의 도래(IP-Economy)

- 과거: 기술〉지재권
- 미래: 기술〈지재권

"기술은 6개월, 특허는 20년 차별화"

자료: 이민화 KAIST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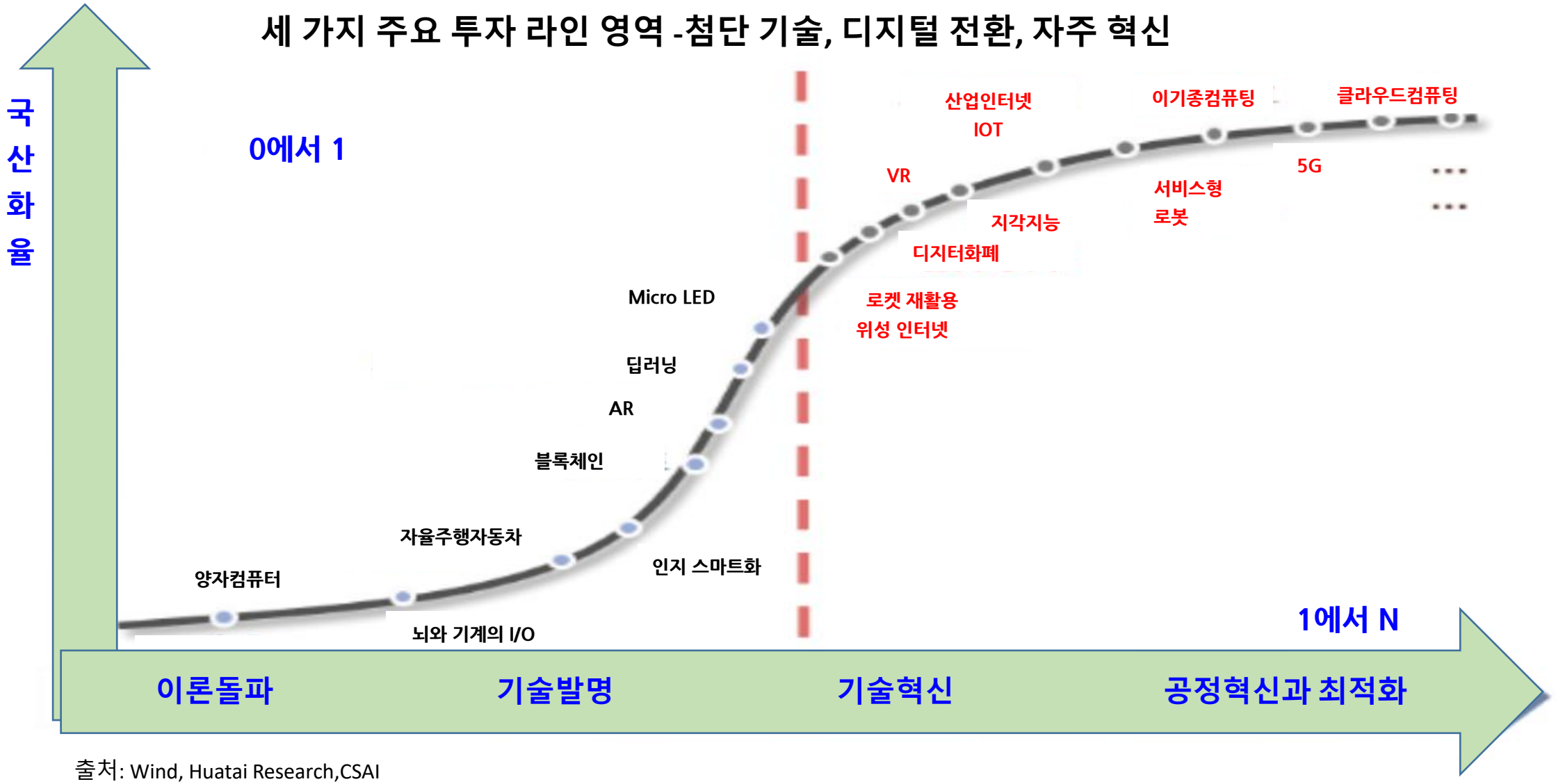


- 제품 + ICT : 스마트카, 무인한공기(드론) 등
- 서비스 + .ICT : 스마트헬스케어, 핀테크, 전자상거래 등
- 산업 + ICT : 스마트농업, 디지털엔터테인먼트 등

※ 스마트헬스케어시장 :

	2014년	2022년	
(글로벌) :	450억 불	2,250억불	→ 연간 40% 성장 예상
(한 국) :	3.4억불	?	

14차 5개년 과학기술 발전 규획: 첨단기술, 디지털전화, 자주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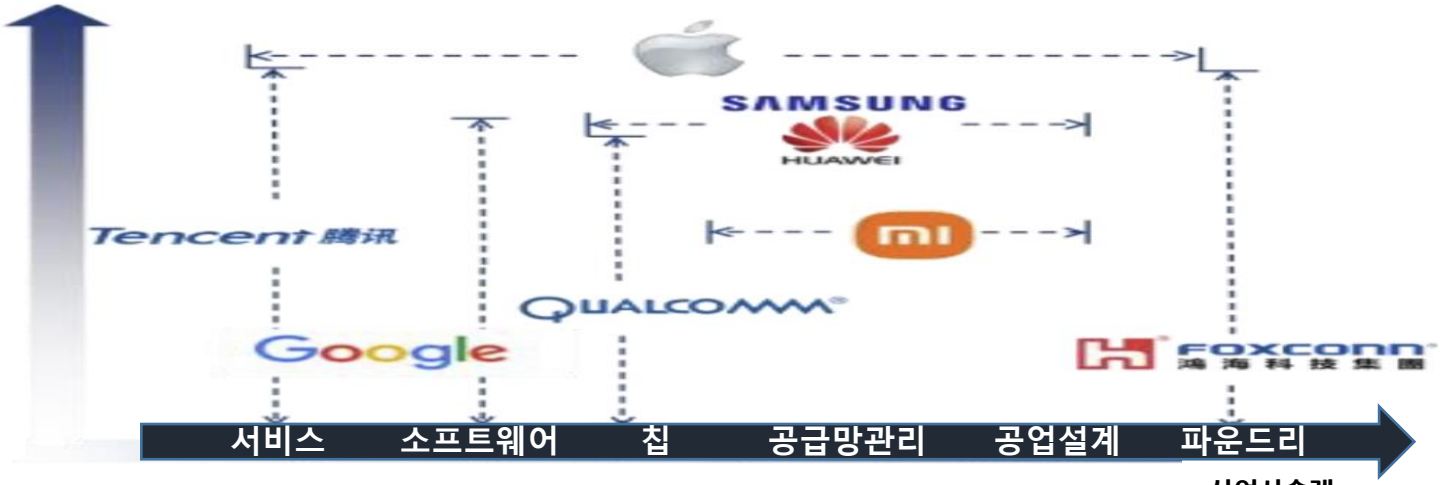


출처: Wind, Huatai Research,CS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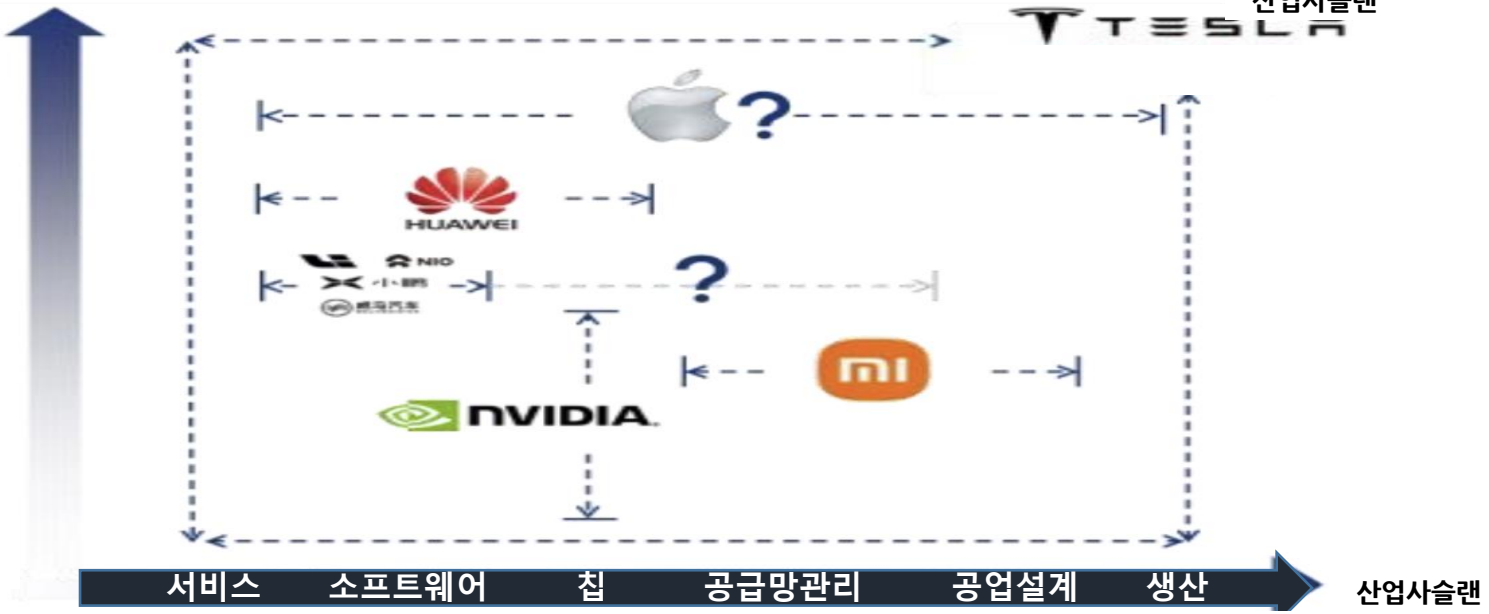
공급망 능력 + 현지화 서비스가 관건

지능화, IoT는 자동차 업계의 상업 모델을 변화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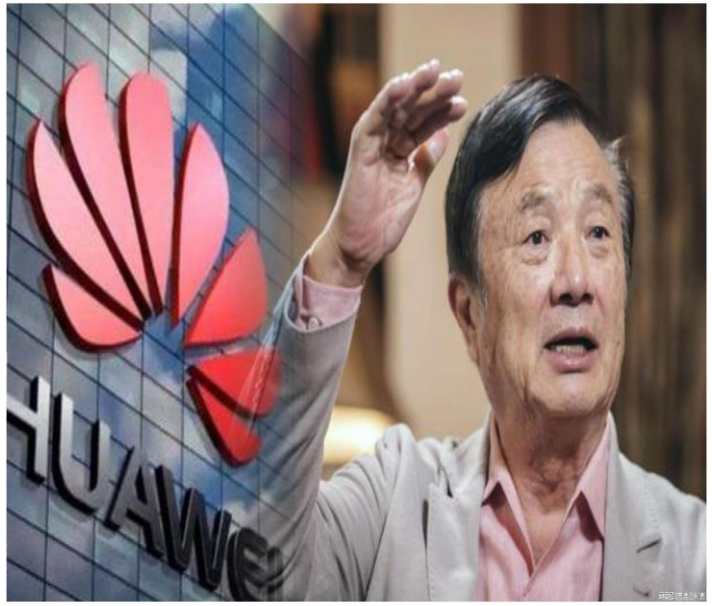
스마트폰의 BM



스마트카의 미래 BM



미중갈등 속 미래 스마트카 영역의 애플이 되려고 하는 화웨이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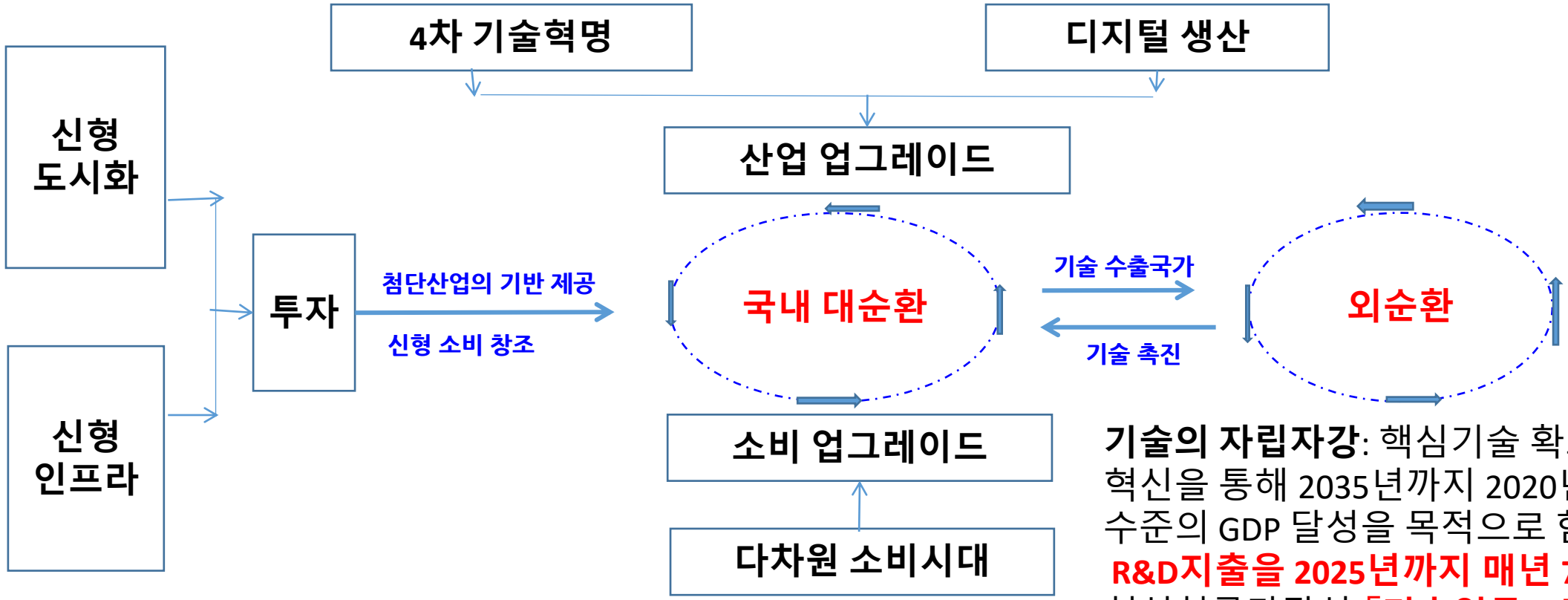
현재 화웨이가 처한 글로벌 형세는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런정페이의 해결법은 '두 다리'로 걷는 전략이다. **화웨이는 미국의 끊임없는 제재앞에서 미래 스마트카 시장에서의 애플과 구글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 런정페이가 읽은 미래 시대적 흐름은 바로 오늘날 스마트폰의 생태계가 미래 스마트카의 생태계가 될 것이라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화웨이의 목표는 '살아남기'이며 그것도 글로벌 최첨단 선도기업으로 살아남는 것이다.

현재 화웨이의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 대한 노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ICT 기술로 자동차 기업의 고도화 전환을 실현하는 Tier1 노선'이다. 화웨이는 자신이 개발한 레이저 라이다, 자율주행 AI 칩, 스마트 스크린 등 각종 기술을 한데 모아 전통 자동차 기업에 스마트카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HUAWEI Inside 모델(약칭 HI 모델)이다. **또 다른 유형은 '자동차 제조'노선이다.** 화웨이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전체적인 설계, 연구 개발과 판매 전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확보해 가는 것이다. 화웨이와 셀리스의 합작이 이를 설명하며 AIOT M5와 M7은 화웨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중국정부의 대응: 기술굴기와 '쌍순환(雙循環)' 전략

중국 2020

중국정부가 정의한 5대 생산요소: 자본, 토지, 노동, 기술,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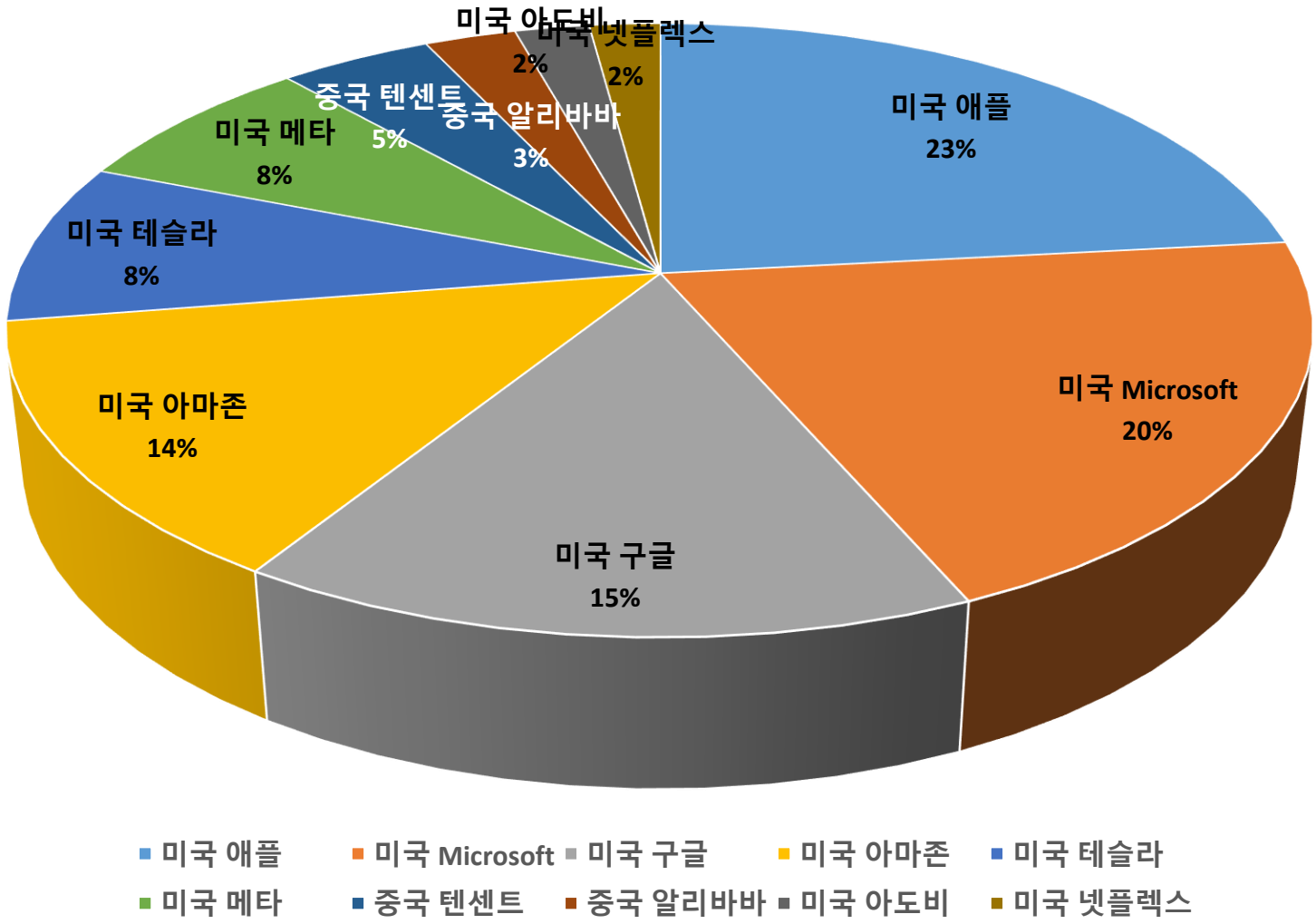
기술의 자립자강: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 혁신을 통해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2배 수준의 GDP 달성을 목적으로 함

R&D지출을 2025년까지 매년 7%씩 증액-> 혁신형국가달성 「**기초연구10개년행동계획**」**책정 및 실시:기초연구비중을 전체 R&D의 8%이상으로 향상**

중국과 미국은 플랫폼 경제 발전의 주요 전진 기지

- **2021년 말까지 세계 10대 플랫폼 기업은 모두 중국과 미국에 위치**
- 이 중 대형 플랫폼 기업인 중국 텐센트(Tencent)와 알리바바(Alibaba)가 각각 7위와 8위에 올랐으며, 이들의 시가 총액은 세계 10대 플랫폼 기업의 7.2%를 차지

번호	국가	플랫폼기업
1	미국	애플
2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3	미국	구글
4	미국	아마존
5	미국	테슬라
6	미국	메타
7	중국	텐센트
8	중국	알리바바
9	미국	어도비(Adobe)
10	미국	넷플릭스(Netflix)



데이터가 다섯 번째 생산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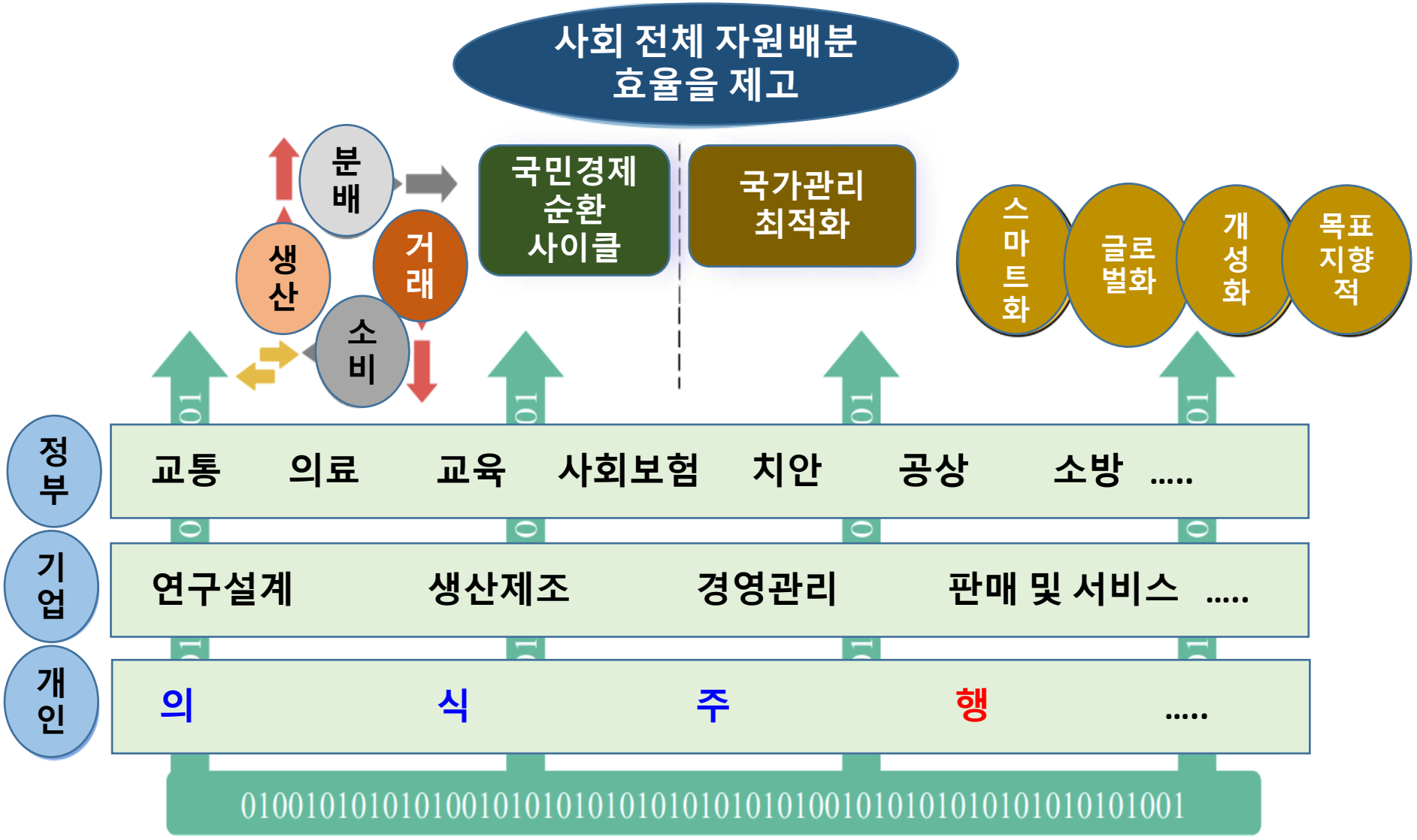
❖ 플랫폼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전 사회의 데이터 양이 급증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 기술의 역할로 사회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토지, 노동, 자본, 기술에 이어 다섯 번째 생산 요소가 되었음

경제형태	노동자	생산도구	핵심 생산요소	성장 함수
농업경제	체력노동자	수동 도구 인간의 육체노동에 대한 제한적 구제(해방)	토지, 노동	$Y_1=F_1(A_1,N,L)$
공업경제	체력 노동자 중심, 소수의 정신 노동자	에너지 변환 도구 인간 육체노동의 해방	+ 자본, 기술	$Y_2=F_2(A_2,K,T,N,L)$
디지털경제 (플랫폼경제)	정신 노동자 중심	스마트 도구 구동 에너지 변환 도구	+ 데이터	$Y_3=F_3(A_3,D,K,T,N,L)$

주 Y: 경제 산출 F: 생산 함수(조직 형태 등 포함) A: 기술 진보 N: 토지 L: 노동 T: 기술 K: 자본 D: 데이터

플랫폼 경제가 움직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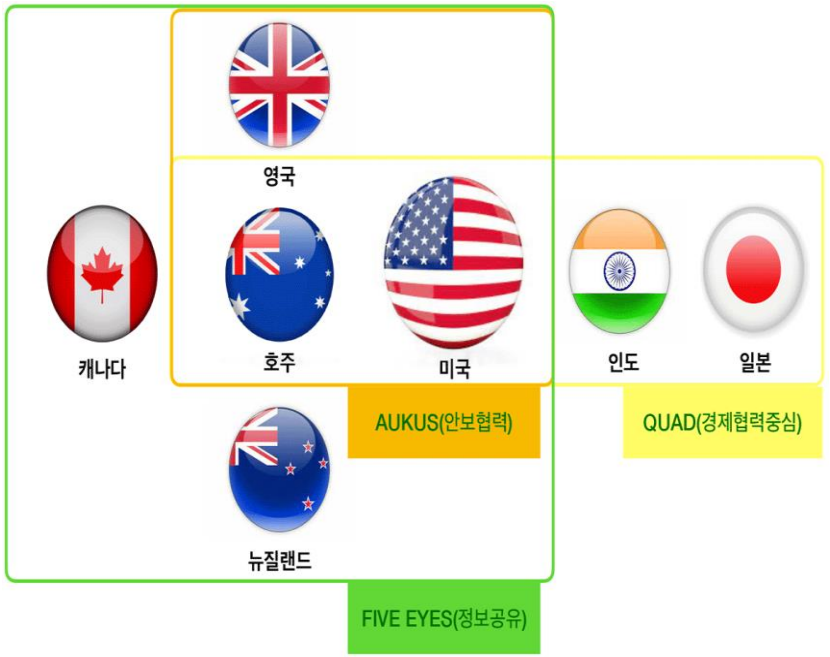
❖ 플랫폼 경제는 전 사회의 자원 배분 효율을 향상시키고 기술과 산업의 변혁을 정보화, 디지털화, 지능화 방향으로 가속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국민 경제 순환의 각 부분을 관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 관리의 지능화, 글로벌 전역화, 개성화, 목표지향적 정밀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됨**



전 세계 각 국가의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미중 관계

➢ 량전 속에서 각 국은 선택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시장이냐?
이념이냐?



https://snuac.snu.ac.kr/?p=34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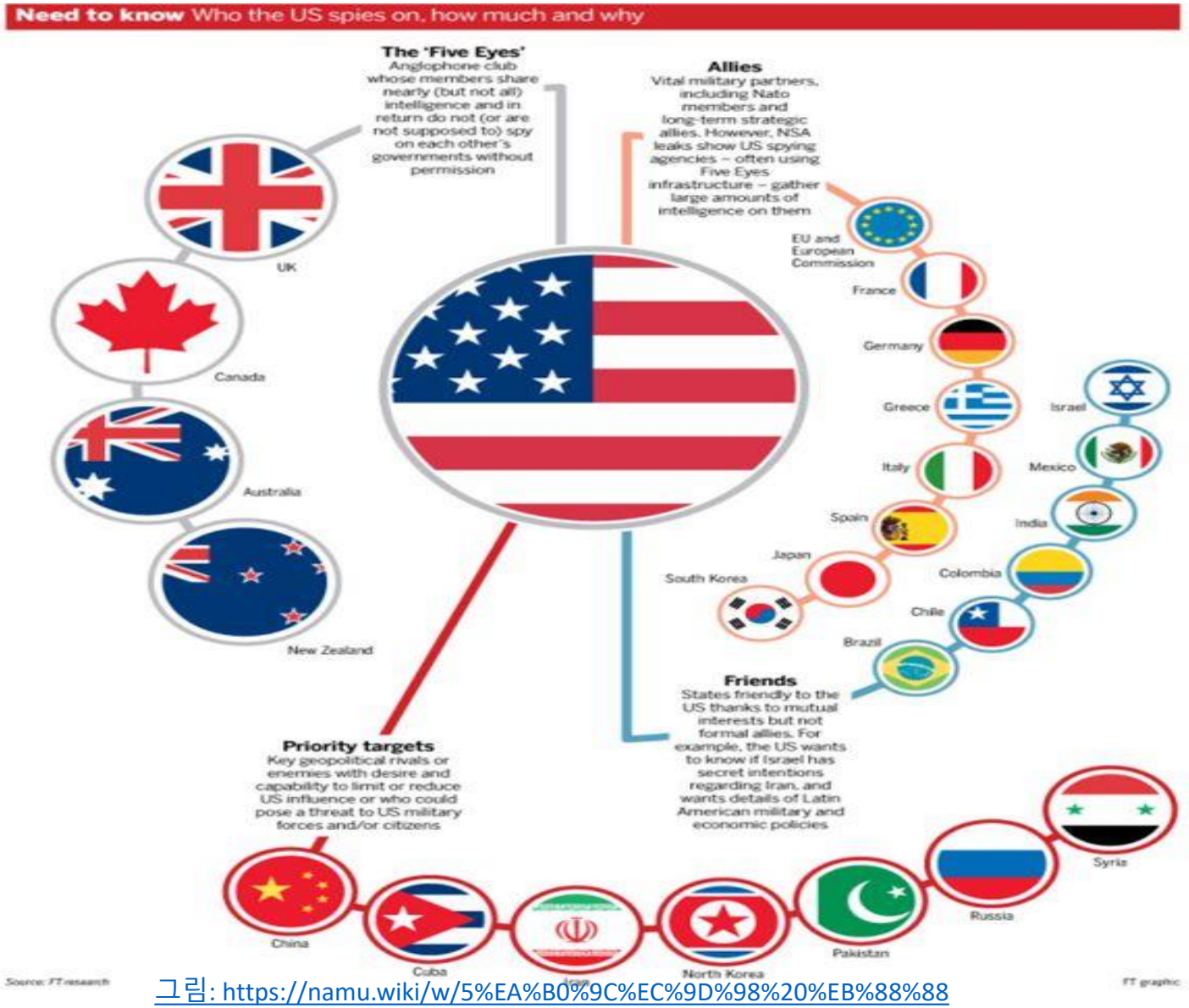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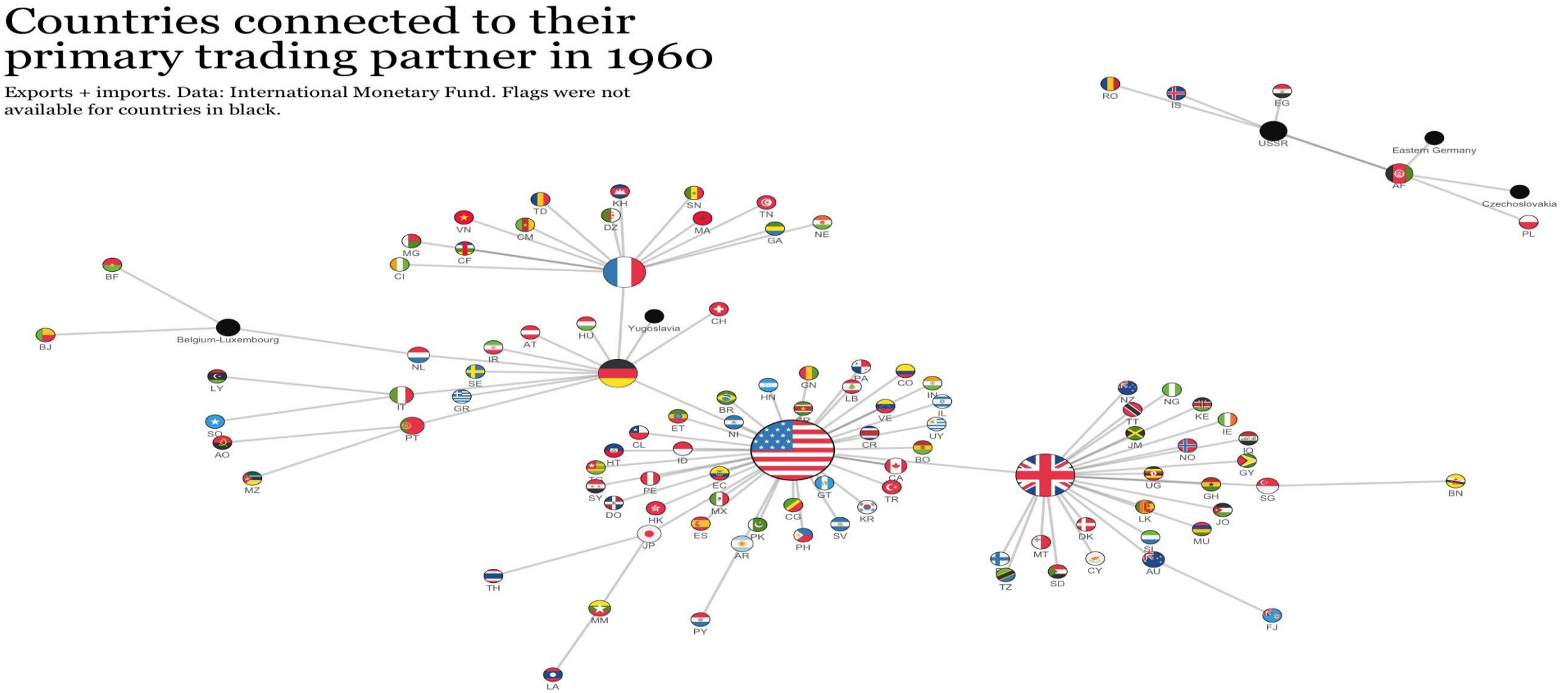


그림: https://namu.wiki/w/5%EA%B0%9C%EC%9D%98%20%EB%88%88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 '안보개념' 중심으로



https://www.visualcapitalist.com/cp/biggest-trade-partner-of-each-country-1960-2020/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 '안보개념' 중심으로

https://www.visualcapitalist.com/cp/biggest-trade-partner-of-each-country-1960-2020/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IPEF 참여국은 '중국의존국'

(%)

	수출	수입
	중국으로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인 품목의 대중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인 품목의 대중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도네시아	8.3	16.5
말레이시아	3.3	8.8
필리핀	4.7	10.9
싱가포르	1.4	4.0
태국	4.8	11.1
베트남	10.8	17.4
대한민국	11	13.8

KBS 자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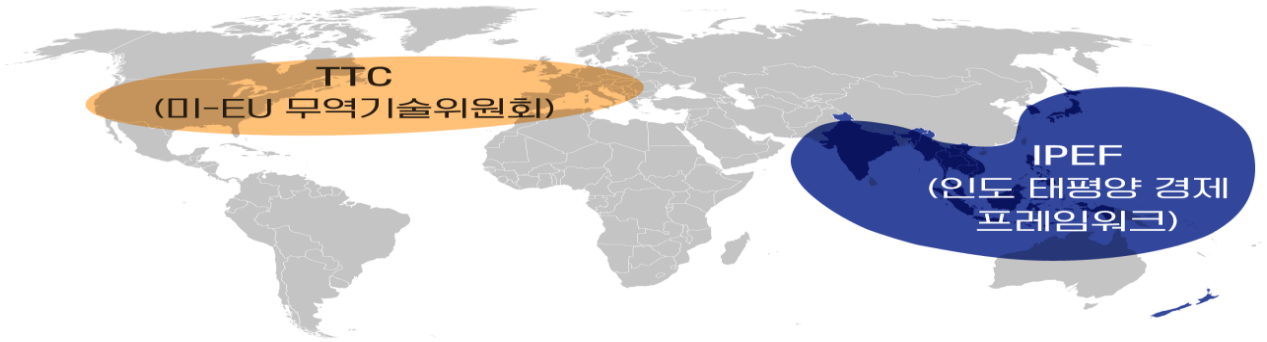
드러나는 IPEF의 4가지 기본구상(Pillars)

1. 공정한 무역 (디지털 경제와 신기술, 노동, 환경, 투명성, 경쟁 등 7개 의제)
2. 공급망 안정성 (공급망 단절 시 대응, 부품 표준, 원재료 협력)
3. 인프라, 탈탄소 에너지 협력 (재원 마련, 기후대응 국제 협력)
4. 반부패와 조세 협력 (디지털세, 반부패 조치, 정부 투명성)

KBS 자료 美 CSIS 4월 브리핑 'IPEF에 대한 지역적 관점들'

미국의 '新중국책략'

-경제안보 협의체로 '중국을 포위'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9737

상하이협력기구(SCO) 역할과 기능 확대 예상

로고

1996년 4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에서 모인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정상들이 《국경 지대의 군사적 신뢰 강화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상하이 5국**(Shanghai Five)이 형성되었다. 2001년 6월 15일에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면서 상하이 5국은 상하이 협력 기구로 개편되었다. 2017년 6월 9일에는 인도, 파키스탄이 가입하였다. 2021년 9월 17일에는 이란이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4]

상하이 협력 기구는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3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유라시아의 안전 보장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하이 협력 기구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8개국은 정회원국, 아프가니스탄과 몽골, 벨라루스, 이란 4개국은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국가 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초청 국가 및 기구이다. 또한 스리랑카,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몰디브, 미얀마, [[아랍에미리트]는 대화 파트너로 지정되었다.

세계 인구 60%,
세계 경제 거의 30%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D%95%98%EC%9D%B4_%ED%98%91%EB%A0%A5_%EA%B8%B0%EA%B5%AC

약칭	SCO
결성	2001년 6월 15일
형태	국제 기구
본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
회원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1][2] 파키스탄[1][3]
공식 언어	중국어, 러시아어

첨단산업의 미국의 제재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구성과 개요

Division A. CHIPS Act of 2022 (美 반도체 지원법)	
주요 내용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직접 보조금 390억 달러 (성숙공정 시설 보조금 20억 달러 포함)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비 110억 달러 (국가반도체기술센터, 첨단후공정생산프로그램 등) 시설 및 장비투자 세액공제 25% 도입 (반도체촉진법(FABS Act) 포함 및 통과)
Division B. Research and Innovation (첨단기술 및 기초과학 R&D)	
Title I.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for the Future (에너지부)	
	- 핵융합, 핵물리학, 가속기 및 핵에너지 관련 기초과학 연구 - 바이오 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탄소포집 - 고성능 컴퓨팅, 양자 네트워크
Title II.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for the Future (국가기술표준원)	
	측정과학(유전자 시퀀싱 등)을 위한 생물학, 생체계측학 및 인공지능, 중성자 산란 연구 국제 표준 개발 및 업데이트, 소프트웨어·사이버 보안 연구 Manufacturing USA 등 제조업 발전을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확대
Title III. National Science Foundation for the Future (국립과학재단)	
	교육과정 전주기 STEM 교육 강화, STEM 교육 다양성 확대 및 연구 안보 강화 자원(농업, 에너지, 물), 기후변화 및 무인항공기·선박 외 기존 기초과학 연구 심화 기술혁신국 설치, 인공지능 연관 10대 핵심 기술 영역 R&D 집중
Title IV. Bioeconomy Research and Development (바이오경제)	
	대통령(과학기술정책국 대리)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작성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범부처 위원회 및 12인 이상 산학연 고문위원회 설치 물리, 화학 등 기초학문과 첨단 ICT 기술 융합으로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제조 역량 발전
Title V. Broadening Participation in Science (다양성)	
	연방 연구 자금 배분 및 STEM 인력 구성의 다양성 제고 소수자 교육기관(HBCU, TCU, MSI) 및 교외지역 STEM 교육 강화,
Title VI. Miscellaneous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기타)	
	국가과학기술전략 및 경제안보 과학·연구·혁신 전략 작성 양자 통신,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 범부처 워킹그룹 운영 핵융합 등 핵물리 연구와 인프라 확충, 탄소저감 및 에너지 효율 제고(반도체, 철강)
Title VII.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Authorization Act (우주항공국)	
	NASA의 탐사시스템개발국(ESDMD) 산하 'Moon to Mars' 프로그램 오피스 신설 2030년까지 인간 화성 탐사 목표, 저농축 우라늄 로켓 추진 기술 개발 실험적 차세대 항공기, 무인항공기 및 첨단 천체 관측 망원경 발사, 소재부품장비 연구
Division C. Supplemental Appropriations to Address Threats to the SCOTUS (美 헌법재판소)	
	논쟁적 판결 이후 본인 및 가족들의 생명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브렛 캐버너, 클래런스 토마스, 소니아 소토마이어 등)

자료: 「반도체와 과학법」참조하여 산업연구원 정리

http://industryjournal.co.kr/news/228696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

청정에너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2005년 대비)을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약 479조 원) 투자

친환경에너지 발전 지원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업체 등에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효율 가전 구입 리베이트	열펌프나 기타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구입 시 14,000달러의 직접 소비자 리베이트 제공
태양열 설치 세금 공제	가정에서 지붕에 태양열 설치 시 30% 세금 공제(750만 가구)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세액 공제

-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제외
- 미국에서 조립·생산
- 배터리·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

보건의료

노인 처방약 부담금 감소	메디케어(공공 건강보험) 파트D를 가진 노인 5천만 명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 상한선 연간 2,000달러
당뇨환자 인슐린 비용 감소	메디케어에 가입된 당뇨병 환자 330만 명의 인슐린 비용 상한선 월간 35달러
건강보험료 지원 연장	연간 평균 800달러의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 연장 (1,300만 명)

세금 (재원 마련)

대기업 법인세 증세	연소득 10달러 이상의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자사주 매입 세금 부과	자사주 매입 시 매입액의 1% 과세

자료: AP, 미국 백악관 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20220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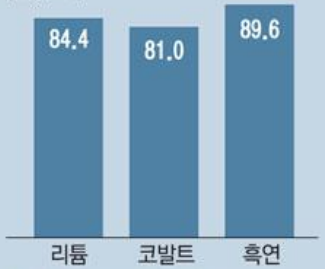
https://www.yna.co.kr/view/GYH20220817001200044

미국 인플레 감축법 중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 내용

개요	주요 광물·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 또는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전기 구매 시 대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생산 조건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 한정
지급 대상	니켈·리튬 등 배터리 광물(3750달러) 요구비율: 2023년 40%→2027년 80%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부품(3750달러) 요구비율: 2023년 50%→2029년 100%
소득 기준	연간 총수입 30만달러 미만 가구
가격 기준	SUV·픽업트럭: 8만달러 이하, 승용차: 5만5000달러 이하
적용 시점	2023년 1월 1일부터(배터리 광물, 부품 기준 적용)

주요 배터리 광물 중국 수입 비율

(단위=%)



*1~7월 기준. 자료=한국무역협회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8/741963/

첨단산업의 R&D 비용의 지속적인 EXIT 시장 중요성

BCG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Qualcomm 매출의 약 2/3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화웨이가 약 10 %를 차지

2018 년 NeoPhotonics의 총 매출 중 46 % 이상이 중국 화웨이에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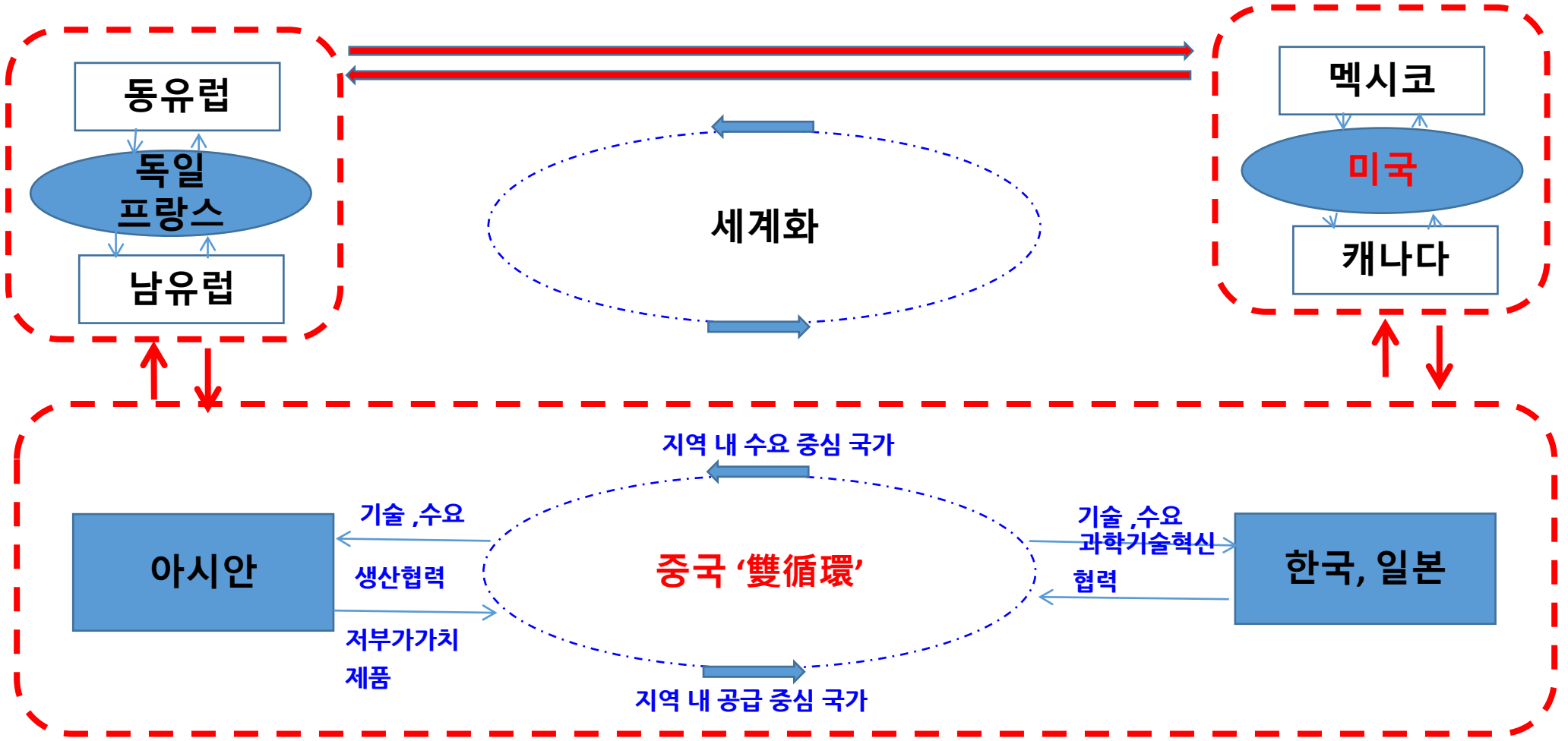
미국 RF 부품 제조업체인 Qorvo가 화웨이와의 거래에서 매출의 11 %를 차지

스마트 폰 통신 반도체에 중점을 둔 Skyworks Solutions도 영향을받을 것.

기업명칭	2018년 중국시장에서의 매출 비중(%)
Skyworks Solutions	85
Qualcomm	69
Nvidia	56
Micron	55
Broadcom	54
Applied Materials	47
Texas Instruments	45
Lam Research	43
Microchip	41
Intel	40
AMD	26
Xilinx	25
Apple	22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 '안보개념'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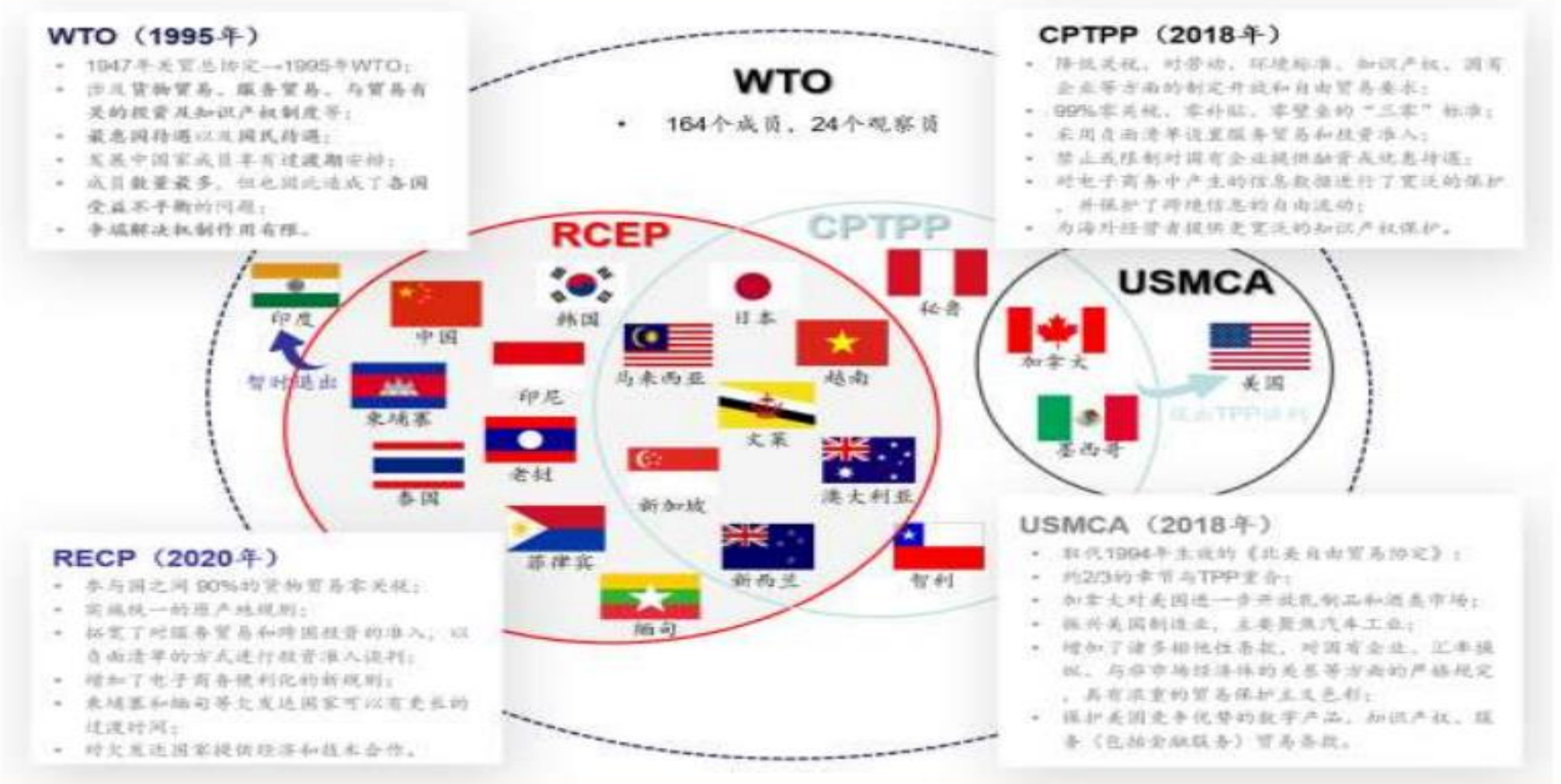
<2020년 이후 지역별 밸류체인 강화 예상 - 3대 지역 산업 사슬랜 구축 전망>



2020년 11월 RCEP 체결 vs. 중국의 CPTPP 가입 추진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 '안보개념' 중심으로

图表29： 国际主要贸易协定一览



资料来源：WTO，CPTPP，USMCA，RECP，华泰研究

Confidential

谢谢

H.P.: 010-7187-2088

CSAI
China Securities
Administration Institute

CSAI
중국증권행정연구원